



시론

어느 낙선자 이야기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교회 사역에서 피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직분자 선거다. 직분자가 있는 것은 목회사역에 큰 도움이 된다. 아주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목회자가 더욱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본무에 충실하려면 직분자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장로를 세워 놓았다니 교회에서 결정적으로 어려운 위기 때 한 뭉치를 감당한다. 권사를 세우니 교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찾아다니며 위로와 격려를 해서 약한 자들로 하여금 교회생활의 참 맛을 알게 해준다. 안수집사 역시 교회에서 땀 흘리는 일은 도맡아 하니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활기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자 선거를 여전히 피하고 싶은 이유는 당선되는 이들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에도 그랬다. 많은 이들이 당선이 되

었지만 안타깝게도 낙선한 이들이 몇 있었다. 목자의 마음은 양들이 아프면 따라 아픈 것이다. 당선자들의 명단을 발표하는 가운데서도 환호작약할 수 없었다. 함께 결과를 듣는 교인들 역시 당선자보다는 낙선자의 눈치를 보면서 조용조용히 당선된 이들에게만 축하를 건넨다. 이전에 선거를 치를 때 낙선된 한 가정은 끝없는 설득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교회를 떠났다. 가슴 아픈 이야기를 친구 목사에게 했더니 자기는 선거를 잘못해서 수십 명이 떴어 떠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래서 선거를 하는 당일에 어느 낙선자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기억자 예배당으로 유명한 금산교회가 있다. 그 교회는 1905년 미국 남장로교 소속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의 전도로 조덕삼이라는 이가 세운 교회다. 조덕삼은 운수업과 광산업을 하는 엄청난 부자였기에 교회를 자기의 돈을 내서 세웠다. 그런데 그 집에서 머슴을 살던 이자익이라는 자가 함께 예수를 믿고 같은 날에 세례를 받았다. 이자익은 조덕삼보다 열다섯 살이나 아래이며, 고아로 자라서 떠돌다가 여섯 살에 조덕삼의 집에서 받아주어 머슴을 살았다. 그 교회가 성장을 하여 오십 명쯤 되었을 때 장로 한 명을 피택하기 위해 투표를 했는데 마침 주인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이 함께 출마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은 낙선을 하고 머슴은 당선이 되었다. 결과를 받아든 교인들이 술렁이며 큰 근심을 하는 표정들이 역력했다. 사태를 눈치 챈 조덕삼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의 장로님을 잘 받들어 교회를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불안하던 초조했던 온 교회가 대환영을 하면서 박수를 쳤다. 당선된 머슴 이자익보다 낙선된 주인 조덕삼이 훨씬 더 존경받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는 2대 장로가 되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조덕삼 장로는 모든 경비를 대주면서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입학시키고 공부를 하게 했다. 그 후 목사가 되자 조 장로가 나서서 이자의 목사를 금산교회 담임목사로 청빙하였다.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이자의 목사는 장로교 역사상 세 번이나 총회장을 역임하는 초유의 목사가 되었다. 조덕삼 장로는 4선 국회의원이었던 고 조세형 의원의 조부이다.

당선자는 자신을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직분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 말과 행실에서, 교회의 출석과 봉사, 헌금생활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은 기본이고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앞장서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라고 직분자를 세웠는데도 종종 문제를 만드는 직분자들로 인해 교회는 어려움에 빠진다. 일꾼을 세웠더니 일감만 되기도 한다. 장로는 자상한 아버지의 역할로, 권사는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안수집사는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형님 같은 자세로 섬겨야 한다. 낙선자는, 선거는 사람이 하지만 당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숙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실망하고 좌절하여 배신감에 교회를 떠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묻고 겸손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조덕삼 장로의 예와 같이 교인들에게 더욱 존경받고 또한 큰 축복이 임한다.

직분자 선거가 있던 날 저녁에 당선된 이들에게는 축하의 전화를, 낙선한 이들에게는 위로의 전화를 드렸다. 당선될 줄만 알았던 낙선자 가운데 한 사람은 아직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는지 전화도 받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도리어 위로의 문자를 전해왔다. “저는 괜찮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미리 평안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 마음을 미리 준비시킨 것 같습니다. 단지 다음 주일에 성도님을 대할 때 인간인자라 좀 불편할 것 같기는 하네요. 또한 내 자신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목사님도 속상해 하지 마세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사모님께 민폐 끼치는 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가슴 뭉클한 감동이 임했다. 그 낙선자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더 깊은 성도가 되는 모습이 마음에 그려졌다. 하나님은 교회사역 가운데 피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도 교회가 성장, 성숙하게 하신다. 그래서 목회자도 자라가게 하신다.

전도의 기본단위를 소그룹으로 전환한다!

소그룹.컴, 개인적 복음 전도방식보다 소그룹/공동체 중심 전도방법 영향력 소개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상 사명을 주셨다. 이제 우리는 함께 살고 일하고 어울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음의 메타포를 제공하신다. 구원의 능력은 당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다.

조나단 도슨(Jonathan K. Dodson)은 현재 텍사스 주 오스틴에 자리한 오스틴시티라이프교회(Austin City Life Church)에서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그는 복음 중심의 제자도를 확장하기 위한 일

함으로 지씨엠 콜렉티브(GCM Collective), 플랜 트알(PlantR: Reorganizing a Network for Movement), 그리고 가스펠 센터드 디사이플십 닷컴(Gospel Centered Discipleship.com)에서 대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저널 “성경적 상담”과 그 외 다양한 블로그에서 기사를 썼었다. 거의 20년간 많은 성도를 제자 삼는 사역에 몰입하였고,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기쁨을 얻고 있다.

도슨 목사는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도 방식들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인주의적 방식에서 탈피한 소그룹 중심의 전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크리스천들은 ‘말’의 사람들이든지 혹은 ‘파워’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종종 합리화된 기독교를 지향한다. 이런 유형의 기독교는 복음의 권능 없이 복음의 말씀을 건지한다. 설교하고, 가르치고, 문답교육을 시키고, 공부하며, 암기하고 말씀을 나눈다. 그러나 거의 효과가 없다.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말은 있지만 “성령과 권능의 나타남”(고전2:4)은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마스터 없이 조직 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을 마스터한다. 우상들을 파악해 낼 수는 있지만 그 우상들의 파워를 해결할 능력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식의 힘으로 성령의 힘을 대체해 버렸기 때문이다.

반대로 영적인 면에 빠진 기독교 역시 똑같은 위험을 갖고 있다. 그러한 기독교는 기



시대가 개인주의화 될수록 사명 위한 공동체성 회복에 집중

소그룹은 선교적 가족공동체로 공동체적 변화에 초점맞춰야

종종 가족공동체로 비유한다. 선교적인 가족이며, 소그룹은 선교적 가족공동체가 돼야 한다. 손님을 치를 때 온 가족이 함께 맞이하듯이 한 영혼을 맞이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은 한 가족의 사명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존재하기 위해 서가 아니라 한 공동체로 존재하기 위해 구원하셨고, 우리를 다시 각각의 공동체 단위로 파송하신다. 요한복음 17장의 유명한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부여하신다. 예수께 부름 받고 보냄 받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다.

그렇다면 왜 소그룹 관계전도가 더 우선시 돼야 할까?

첫째, 전도는 한 번의 사건이기보다는 일련의 과정에 가깝기 때문이다.

한 번의 복음 증거로 신앙을 갖게 되는 일은 거의 없다. 한 번 듣고 회심하는 사람은 30퍼센트 가장 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회심은 오랜 시간 다양한 복음 증거를 듣고 복음을 몸소 경험한 결과이다. 회심은 단번의 사건보다는 과정에 가깝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 “미미한 목소리보다 웅장한 코러스가 더 강력하게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개인보다는 공동체가 복음전도의 의무를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다. 공동의 복음증거는 도시에서 복음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공동체는 주일 설교를 듣고, 함께 나누고, 먹을 것도 나누고, 함께 웃고 즐거워하며, 가난한 사람도 돕고, 서로의 경조사도 챙긴다. 이러한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향해 나아가도록 함께 복음을 전한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gmail.com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유원정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Aviation Management
(General Aviation Management & Flight Aviation Management & Helicopter Flight, Flight Dispatcher, Flight Attendant: Cabin Crew)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L, M.Div, MBA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2017년 항공학과 신설

국제 항공기 조종사, 헬기 조종사, 항공 운항사, 객실 승무원 양성

본교에서는 F-1 Visa 와 J-1 Visa 를 발행하며 집중영어교육(항공전문영어), 비행 조종 실습 및 항공사에서 인턴십도 가능합니다.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공무원, 교사,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571) 730-4750 / Fax:(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성경중심 설교가 교회의 희망

(1면에서 계속)

특별히 젊은 크리스천들 즉 밀레니엄 크리스천들 중 40%는 심지어 주일 설교 내용을 구글 검색을 통해 사실이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결국 겉핥을 통해 밝혀진 설문 결과는 회중들이 이제는 누가 설교하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내용이 설교되어지는가에 따라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 검증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53%의 개신교인들과 53%의 미국인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로 “다이나믹한 종교 지도자의 설교나 영감”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성경중심 설교의 중요성은 이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고 회개한 소위 “구도자 예배” 유형 교회들에서까지 재조명된다. 바로 불신자들이나 크리스천 되기를 거부한 교인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예배가 바로 성경중심으로 신학적 성찰이 담겨진 설교가 있는 예배라고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

귀를 기울인다는 현상을 알렷다. 팀 켈러 목사는 2015년에 출간된 책 (Preaching)에서 자신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강해 설교를 하고 거기에 상황화와 문화적 연관을 담은 예화들을 적절히 소개한다고 자신의 설교 노하우를 밝혔다. 그리고 1년 설교할 주제들을 미리 정하고 설교 10일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진지하고 성경적 통찰 있는 설교가 삶 변화시킬 최적 기회 “들을 귀 있는 자들...” 구도자에배유형 교회들서도 재조명

이다.

지나해 에드 스테처는 이러한 움직임들(오클라호마 메가교회, Life Church)을 소개하면서, 오히려 더욱 단단한 성경적 내용들이 담긴 설교가 불신자들에게 호응을 받는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다시 말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진리에

켈러 목사는 “만약 우리가 설교 준비에 더욱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해서 성경의 도움으로 설교의 능력이 두 배가 될 수 있다고 추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갑자기 설교하자마자,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변화된다고 가정해서는 안된

다고 말한다. 물론 기도의 양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설교에 성경의 임재가 올 수 있는 가장 가능한 길이지만, 결국은 그분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심정으로 설교를 준비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설교는 설교자의 주된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위대한 설교는 바로 성경의 주권 안에서만 이뤄진다”고 고백한다. 결론으로, 한결같이 성경적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높이는 설교로 주일 강단이 채워져야하기를 희망한다.

여기에 ‘오직믿음’(Sola Fide), ‘오직성경’(Sola Scriptura), ‘오직은혜’(Sola Gratia)의 진리가 담겨져 있고, 언제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Sola Deo Gloria)이 선포될 때, 교회는 능히 성장하며 능히 죄와 세속주의를 향해서 싸워 승리할 줄 믿는다.

전도의 기본단위를 소그룹으로 전환한다!

(2면에서 계속)

믿지 않는 사람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다가갈수록, 특히 그들이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 복음을 전할수록 한 영혼의 구원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런 유기적 삶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소그룹이다.

게 신앙적 삶을 살아가는지 다각도의 모델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 자체가 개인적 변화보다 공동체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도는 개인에 대한 복음 선포 뿐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복음적 삶의 형태도 보여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전도는 복음 선포와 더불어 복음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 혼자서도 진리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것은 함께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일이다. 복음의 삶은 개인의 모범도 중요하지만, 신앙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 현대인의 대부분의 삶의 형태는 타인과 밀접히 연계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밀접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그가 개인적인 변화를 위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 사명의 공동체가 되고자 구원받는 것임을 확인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를

보며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라도, 그보고 자란 공동체가 다양한 신앙인 개 개인의 느슨한 모임인지, 아니면 한 사명으로 움직이는 긴밀한 조직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신앙관을 갖게 된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도 결국은 복 받는 개인을 강조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개인이 복 받고 개인이 변화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목적이 있다.

소그룹이 전도를 위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점검하는 가장 기초적인 척도가 된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어렵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그분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서로가 서로에게 소리 내어 복음을 먼저 증거 해보아야 한다. 가정을 오픈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다. 개개인의 가정을 오픈하지 못하더라도, 영적 가족인 소그룹을 오픈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플린 임상목회 (3)

Advance Directives(사전 의향서)



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종합 병원에는 환자의 응급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의 비상 코드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코드가 ‘코드 블루(Code Blue)’입니다. 자신의 병실이나 응급센터 혹은 중환자실 등에서 갑자기 사망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병원 전체에 코드 블루가 발생했음을 즉각 방송합니다. 응급처치팀(Rapid Response Team)을 비롯한 모든 관련 스태프들이 그 위치로 달려가는 흡사 전쟁을 방불케 하는 모습들이 목격됩니다. 미국에서는 병원 채플린 역시 코드 블루 상황시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위기에 처한 환자 와 그 자리에 모여 응급조치를 하는 의사와 간호사, 모든 스태프들을 위해 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물론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환자 가족들을 만나 그들을 위로하고 안심시켜주는 역할도 온전히 채플린의 몫입니다. 기독교나 캐톨릭계 병원에서는 코드 블루 현장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잠시 묵념을 하거나 짧은 기도를 해서 고인을 기리고 유족들의 마음을 달래며, 스태프들을 위로하는 의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응급 상황이 발생했더라도 병원은 환자가 미리 작성해 놓은 소위 Advance Directive(AD, 사전의향서)에 따라 전혀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AD는 병원에 따라 조금 길게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라고도 하는데,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도입되어, 사전 의향서, 사전선택, 혹은 사전의료의향서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AD는 쉽게 말해서 환자가 의식이 있고 판단할 능력이 있을 때 담당 주치의나 치료받게 될 병원 측에 자신의 의학적 응급 상태에서 어떤 조치를 받기를 원하고 어떤 조치는 하지 말 것을 미리 밝혀놓는 일종의 유언장 역할을 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또한 의식이 없거나 의료진과 정상적인 대화를 하며 진료 방안에 대해 환자가 자신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 자신의 법적 대리인을 위임하겠다는 위임장이 되기도 합니다. DPOA(Designated Power Of Attorney, 지정 피위임권자)를 가령 배우자나 자녀 중 한 사람 가운데 지정해 놓으면 환자의 치료에 관한 의사결정의 최종적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갖게 되어 가족 간의 이견이나 대립으로 인한 지연을 방지하고 환자 자신의 의견이 존중되어 신속히 진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의 병상 침대 머리에 보면 가끔 DNR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DNR은 Do Not Resuscitate라는 말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심폐소생술금지라고 합니다. 즉 심장마비 상태가 와도 인공적으로 심폐소생술(CPR) 등을 원하지 않는다는 환자와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연장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표시입니다. 사실 노약자 환자들의 경우, AD에 DNR 등의 명시 없으면, 꺼져가는 심장 박동을 되살리기 위해 건강한 남자 간호사가 가슴을 짓누르는 심폐소생술로 깨어나더라도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멍이 들고 전기 충격기 등으로 인해 마치 전기 고문을 받는 것처럼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 소생한 환자들에 의해 알려져 있습니다. 필자가 경험한 바로도, 노약자들의 경우는 심폐소생술로도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음을 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편안히 생애를 마치지 못하고 엄청난 고통 속에 이생을 하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의 의료진들은 대부분 자신의 AD에 DNR과 심지어 DNI(Do Not Intubate, 기도삽관금지)까지도 지정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심폐소생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호흡곤란이 왔을 때 기도에 강제로 플라스틱 튜브를 삽입해서 산소호흡을 시켜 주는 장치 역시 하지 말아달라는 뜻입니다. 기도삽관을 하면 간신히 호흡을 유지하지만, 가족들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서 마지막 유언 한 마디도 못한 채 운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의사가 가족들, 특히 위임권자의 동의하에 기도 주입관을 빼주어 편안하게 세상을 하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기도 주입관을 제거하면 당장 돌아가실 거라며 반대하는 경우, 미리 작성해 놓은 AD가 없으면 어떤 의사도 골치 아프게 나서서 설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고통은 고스란히 환자에게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종종 지켜보게 됩니다.

AD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소위 POLST(Physician's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생명연장치료를 위한 의사권고사항)입니다. 각 주별로 조금씩 양식이 다르지만, 가족 양식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 해당란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작성해서 주치의와 병원 소셜워커(Social Worker) 혹은 채플린에게 전해 주시면 임력이 되어 모든 진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언제든지 생각이 바뀌면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AD나 POLST도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을 했어도 자신은 심폐소생술이나 기도삽관도 하고 모든 적극적인 진료행위를 받겠다고 명기한 환자를 소위 FULL CODE환자라고 하는데, 이런 환자는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조치이든 다 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많은 환자들을 대하여 사전에 미리 의료결정에 대한 준비를 해놓고 심폐소생술이나 기도삽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거부한 채, 단지 편안한 임종을 위한 적절한 진통제만 으로(Comfort Care) 평화로운 이별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가장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셨던 분인지도 이때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천국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신 분은 대부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족들을 위로하며 자손들에게 신앙의 삶을 당부하며 기도 속에 소천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잘 죽는 것(Well Dying)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집자 주: 모든 임상목회컬럼에 기록된 이름과 지명은 환자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 법규에 따라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tdspark@gmail.com

담임목사 청빙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에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참되고 신실하며, 성경적 개혁 신앙을 갖춘 목사로, 영성, 인성 및 믿음의 본이 되며 젊은 세대 부흥과 세계선교 지향적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는 1977년에 창립되어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소속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선교의 비전을 실현하는 공동체로써 온 영도자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한 삶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지원자격

1.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2.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교단에서 인정하는 정규 신학교 졸업한 자로서 담임목사, 선교사, 부목사 5년 이상 경험자
3.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 선호
4. 미국 내 목회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는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2. 목회철학과 비전
3. 자기소개서 (신앙고백, 목회경험, 가족소개, 사진)
4. 졸업증명서 및 목사안수 증명서
5. 최근 1년 내의 설교(동영상, C.D)
6. 목사 2명 이상 추천서

제출처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range County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92683
oc1newpastor@gmail.com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반우편과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분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서류제출마감

2017년 5월 17일 소인까지

담임목사 청빙

1. 자격 요건

-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 하신 분
- 목회경력(Full Time) 3년 및 그에 준하는 경력을 가지신 분
- 한국어, 영어설교 가능 하신 분
- 미국 PCA 교단에 소속되어 있거나, 가입이 가능하신 분
- 미국 거주에 법적인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2. 제출 서류

- 이력서 - 중요경력 포함
- 목사 안수 증명서 및 최종 졸업(학위) 증명서
- 목회철학과 비전
- 추천서(2명 이상)
- 자기 소개서(신앙고백, 목회 경험, 성장 배경, 가족소개)
- 6개월 이내의 한국어, 영어 설교동영상 각각1편(CD, DVD 혹은 인터넷 링크)
- 가족사진

3. 제출 방법: 이메일 및 우편

- Email: chkpc.cbc@gmail.com
- Address: Cheltenham Presbyterian Church
Attn: 담임 목사 청빙 위원회
7507 Tookany Creek Pkwy,
Cheltenham, PA 19012

4. 제출 기간

- 2017년 5월 31일까지

5.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선정된 분은 개별 통지합니다.



목회서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1895년 청일전쟁이 끝나던 해 무서운 전염병이 한국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콜레라가 발생하여 하루에 700명에서 1,000명씩 죽어갔습니다. 그 병이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대책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가족의 시체도 치우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

해 두는가 하면, 집 안에 한 사람이 그 병에 걸리면 다른 식구들은 다 피하고 환자 혼자 앓다가 죽어가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선교사들과 기독교인들이 가슴에 십자가 마크를 달고 시체들을 목욕시켜서 정중하게 관에 모셔 장례를 치르고 가족이 버

리고 간 환자들을 찾아가서 소독도 하고 치료도 해 주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를 야소교, 서양종교라 하여 핍박하고 미워하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새로운 호감을 갖게 되었고 황실에서까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고종황제가 기독교를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조상제사 안하는 불효의 종교라고 핍박하던 유교의 골수분자들이 기독교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자기들이 버리고 간 부모님의 시신을 기독교인들이 거두어 주고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무서운 속도로 부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살아계신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천사가 증언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다

락방에 모였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 성령을 받고 그들은 하나 같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가 바로 예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거짓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도 모든 제자들이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길을 갔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이 미국의 청교도신앙 회복의 역사, 위기상황에 있는 조국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죄와 죽음의 권세와 마귀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며 다니엘처럼 조국을 위해 기도의 창을 열고 묵숨 걸고 중보

기도 할 때 진정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조국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구한말의 정치상황과 흡사합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도마 위에 놓고 서로 이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 땅엔 순교자의 흘린 피가 있고 지금도 살아있는 성도들이 순교신앙으로 새벽마다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세계선교의 마지막 주역의 사명을 받은 한국이기에 조국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서라도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부활의 기적이 조국 땅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푸/른/초/장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 이십니다.

시편 27편 1절 후반을 보면 하나님은 구원이심을 고백했던 다윗은 이제 “여호와야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말은 산성, 방패, 요새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호자가 되시며 피난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망의 잠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잠을 잠깐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의 잠이란 영혼이 어두움에 깊이 빠져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 죽음으로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무엇입니까? 찬양과 말씀과 기도생활이 중단된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 하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으로 이끄는 죄를 쉽게 범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은 공의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의미는 세상의 온갖 불의와 악의 세력을 쳐부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받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실패와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것들은 절대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멸망의 깊은 수렁으로 이끌어 가는 사망의 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의 죄까지를 살피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와 시대사조에 침몰한 교회는 이제 광풍이 일고 있는 바다 한 가운데 표류하고 있지만 그것을 인도해야 할 진리의 등대는 온갖 잠동사니로 혼탁해져서 그 빛을 잃고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고, 개개인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서 근신하며 진정 두려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다시 한 번 새기고, 신실한 믿음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livingstonech@gmail.com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시편 13편 1-6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요동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6, 7개월 정도가 지나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가지의 문제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란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는 영역이 육체적인 영역을 넘어서 정신적인 것으로 점차 넓어집니다. 먹고사는 일로 시작해서 죽음의 문제까지, 그리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생각되는 것가지의 대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진 것을 잃어버리거나 앓을까 하는 생각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두려움이 무엇인지 간에 만일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평화를 빼앗고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 위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은 어두움에서 출발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인생이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나그네 여정입니다. 예상치 않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

다. 어두움은 사탄의 본질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흔히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어두움을 향한 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의 실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야 나의 빛이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빛이 되십니다. 그 분을 마음속에 주(主)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영원한 빛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 주실 것입니다.

보라가 치고 성난 파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가지의 시련이 닥칩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세기의 가공할만한 끔찍한 비극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코던지 작던지 모든 재난과 환난으로부터 능히 피하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지켜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시편 27:1). 다윗은 일찍이 그

처가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명의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빛 되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것들도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이 세상 것들이

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말은 법의 기본정신입니다. 만인평등의 기초개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법을 정의하는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또 죄를 짓고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는 죄로서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과는 다릅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www.rptse.com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전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학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문의처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이라고도 하고 관원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건을 보게 된다. 그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하고 예수님께 묻는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대답하신다. “계명을 지켜라” 그러자 청년은 대답한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는 청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는 것이 곧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시자, 이에 반응하는 청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나...” 물론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게 된 이유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라고 성경은 더 분명한 이유를 말한다.

자기생각 자기마음 자기의 길
이 청년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그가 보여주는 행동을 좀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한 단어를 첨가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자기생각”이다. 이 단어를 첨가해서 말씀을 완성하면, “그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설명가능해질 것이다. 겉으로 보여지는 이 청년의 질문은 누가 보아도 그가 진실한 신앙인임을 느끼게 하는 말이다. 하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이 영생에 관한 정답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돌아가 버렸다는 말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자기만족 속에서 영생의 길로 가고자 하는 “자기생각”이 이 청년의 마음속에 가득하였던 것이다. 주님은 그런 청년의 마음을 보시고 영생은 너의 선한 행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네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는 재물을 부인하고 네 마음도 몸도 “나를 따르는 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자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있어 보이고 진실해 보이던 이 청년은 생명의 진리도 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마음 자기 길로 돌아서 버렸던 것이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뜻이 아닌, 자기 신뢰, 자기 믿음이 인생의 행동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생각에 빠진 교회와 예배자들
오늘날 교회들, 특히 이민교회에서 이런 청년과 같은 모습들은 너무나도 자주 보게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생각”에 빠져 있음을 본다. 결국, 이러한 자기생각에 대한 믿음들이 마침내 그들의 행위가운데 복되지 못한 열매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은 한마디로 자기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다. 재물과 세상의 영광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다. 자기의 행실이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자기의 행위의 선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예배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일간사 제자들교회)



자기 소전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상

-자기생각, 개성, 영적실패

가롯유다의 자기생각

예수님의 제자가운데 가롯유다의 실패를 단적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자기생각”이다.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과 천국에 대한 믿음을 증거 하는 제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가롯유다를 제자로 부르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를 다른 제자들과 함께 데리고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게다가 재정을 맡는 중대한 일도 가롯유다에게 맡기셨다. 그런데 그는 제자로 부름 받고,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라 다니기는 했지만 결국은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넘기게 된다. 그렇다면 가롯유다는 어떻게 이런 큰 죄를 짓게 된 것일까?

예수님과 가까이 함이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가까이 있어도 다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가롯유다와 같은 시험에 빠지게 되고 무너지게 됨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도 “자기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가롯유다와 같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지 못하면 가롯유다가 된다.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가롯유다같이 될 것이며, 믿음도 영생도 다 잃어버리

세기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산업혁명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지주와 농민으로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엄청나게 변화시켰다. 세습적 부를 누리며, 세습적인 가난을 인정했던 생활의 방식을 힘쓰고 노력하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재물을 얻는 사회로 삶을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과학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곧 현실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다. 생각하며 사고하는 힘의 중요성을 더욱 더 강조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세상은 이런 “자기생각”을 개성이란 멋있는 단어로 바꾸어 부르기도 한다. 자기 개성이 중요시 되는 사회, 그래서 부모들이나 학교가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하며 교육하고 양육한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생각, 자기 개성만이 너무나 두드러지다 보니까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자기생각, 자기개성이 중요하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성공의 요인이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내 생각”, “자기생각”만 가지면 예수님의 말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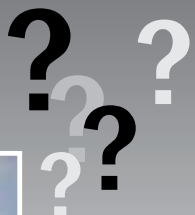
듣기는 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마침내 믿음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생각”을 버리지 못하므로 부자 청년과 가롯유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기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셔도 사람이 보아도 추한 모습이 된다.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가 예배함에 있어 내 생각, “자기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채우며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생명의 기적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영적존재로 새로워질 것이다. 봉사의 열정도 중요하고, 자신을 헌신하는 섬김도 필요하지만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하는 성도는 바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변화된 존재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어떤 목사님은 우리는 로마서 6-7장의 말씀대로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아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이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 한 예로 십일조도 구약의 율법시대에도 해당되기에 오늘날의 은혜시대에는 그런 것에 매일 필요가 없다고 설교하시는 데요...

-오렌지카운티 M 장로

A: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6개월에 한번 정도는 치과에 가서 스케링을 합니다. 스케링은 의사의 말에 의하면 “치매와 뇌졸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과에 가면 스케링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잇몸주변을 엑스레이로 여러 군데 촬영을 합니다. 율법의 효능은 마치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상태를 환하게 잘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환하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롬7:7).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성경을 읽어야 하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성경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엑스레이를 찍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내 자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의미

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내 자신의 영적 현주소를 알아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지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는 로마서 3장 20절에 한 사람도 없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인 예수님이 우주 밖에서 오셔서 율법의 제주를 대신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죄에서의 자유, 로마서 6장과 7장은 율법에서 자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옛 남편인 율법에서 자유를 받아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재혼하여 연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즉 “율법에서 해방되어 이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열렸다”고 로마서 6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해 아주 위험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에서 해방 받았어, 그렇다면 이제는 율법은 필요 없게 되었어. 우리는 은혜시대에 살게 되었기에 율법의 말씀에 전혀 부담 느낄 필요가 없어, 그리고 교회에서 강조하는 십일조는 구약의 율법시대에도 해당되는 말이야”라고 말하며 율법을 경시하는 소위 반율법주의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설혹 우리가 연약하여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한다 해도 그것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거나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담임목사 청빙

해리스버그 한인장로교회는 펜실베이니아 주 해리스버그 지역에 있으며 1974년도에 설립되어 PCUSA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다음과 같이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자격요건

1. 정규 신학대학원 (M. Div.) 을 졸업하신 분으로 PCUSA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2. 5년 이상 목회경험 (담임목사 또는 부목사)
3. 이중 언어 (한국어, 영어) 사역하실 수 있는 분은 우대함
4. 미국 거주와 목회하는데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영주권/시민권자 우대)

제출서류

1. 한국어와 영어 이력서 (email address포함)
2. 졸업증명서 (대학교와 M. Div.) 및 목사안수 증명서
3. 목회 소견서 및 자기 소개서 (한글 및 PIF)
4. 최근 1년 이내의 설교 2편 (CD또는 youtube link)
5. 추천서 2통 (봉인)
6. 본인 및 가족 사진 각 1매

제출기간 : 2017년 5월 31일 (수) 까지

제출처 : Harrisburg Korean Presbyterian Church PNC, Attn: Young Choi
1127 Slate Hill Rd, Camp Hill, PA 17011
E-mail: hkpc.pnc@gmail.com

기 타 : 제출서류는 우편과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PCUSA MIF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리스버그한인장로교회
www.harrisburgkorea.org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지/원/자/격

1. 나이제한: 40~50세
2. 개혁 보수 신학 대학원(M.Div)을 마치신 분
3.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지하신 분
4. 5년 이상 목회 경력과 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1. 이력서(가족사진 첨부)
2. 졸업 증명서(대학교와 M.Div) 및 목사 안수 증명서
3. 자기 소개서(신앙고백, 목회 경험, 목회비전, 성장배경, 가족소개서)
4. 설교(가장 최근 것 CD나 동영상)
5. 추천서 두분의 목사님이 추천하시고 추천하신 목사님이 직접 우송
6.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분은 개백통지합니다.
7. 제출서류 서류 마감일: 2017년 6월 15일

제출처 주소

세인트루이스 한인소망교회 청빙위원회
Korean Hope Presbyterian Church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교회: www.hopetstl.org
Tel: (314) 369-9450 오귀록 장로
Email: jbm316@yahoo.com

· 교회비전 ·

위로와 심을 얻는 교회
성령의 새 힘을 공급받는 교회
영혼 구원의 사랑을 품은 교회
추수하는 교회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라오스의 볼로벤(BOLOVEN)



볼로벤족은 라오스 남서부의 기름진 고원지대에 거주한다. 이 고원은 해발 약 3,500피트에 위치하며, 한때는 매우 비옥한 땅이었다. 그러나 내전과 뒤떨어지는 교통 상황, 농작물 질병 등으로 인해 커피, 면화, 담배 생산에 차질을 빚어왔다.

볼로벤족의 조상은 9-13세기에 흥왕했던 대 크메르제국 사람들이

다. 번성기의 크메르제국은 현재의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일부를 포함하는 대 제국이었으나, 타이족과 베트남인들의 침입 후 쇠퇴했다. 앙코르로 알려진 캄보디아 왕국의 중심은 볼로벤 지역에 위치했으며, 오늘날도 이곳에는 8-12세기 유물과 유적의 옛터들이 있다.

근래에 라오스는 수많은 전쟁을 치렀으며 중국, 러시아, 베트남이 라오스를 놓고 정치적으로 경쟁해왔다. 특별히 볼로벤족은 라오족, 중국인 상인들, 유럽 식민자들과 접촉을 했던 까닭에 다른 종족들을 잘 알고 지낸다.

삶의 모습

볼로벤족은 농업기술을 통해 라오스에서 다른 종족들과 무역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흥미로운 경제적 네트워크를 발달시켰다. 볼로벤족은 아이리쉬 감자를 재배했는데, 이 감자는 라오스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일부였던 때 프랑스에 의해 라오스에 소개됐다. 그 후 감자는 중요한 농작물로 발전했고, 볼로벤족은 유럽인들과 중국인들을 포함하는 무역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됐다. 이제 다른 종족들이 볼로벤족을 위해 일하고 생산물을 중국 상인에게 판매한다. 볼로벤족은 또한 쌀, 옥수수, 후추, 양(yam), 다른 야채 등을 재배한다. 수출을 위해 카르다몸(cardamom), 계피 등과 같은 향료도 재배한다.

볼로벤족은 이 지역의 다른 종

족들과는 달리 직조나 금속공예 등은 하지 않으며, 목공예 뛰어난 재능을 나타낸다. 또, 볼로벤 고원에는 조각할 때 사용하는 돌인 "파고디트(Pagodite)"가 매장돼 있다고 한다.

볼로벤족은 남서 문순 케도상에 거주하고 있으며, 강수량이 160인치(4,000mm) 이상으로 라오스에서 가장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다. 볼로벤 마을은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가족은 직사각형, 대밭 위에 고상식으로 집을 지어 층계를 통해 출입한다. 가족의 수입에 따라 짚이나 나무 벽, 짚이나 기와지붕, 대나무나 나무 마루로 이뤄졌다. 각 가족에는 야채와 풀을 키우는 부엌 정원이 따로 있다.

마을은 볼로벤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단위다. 각 마을에는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수장이 있다. 볼로벤족들은 라오스 국

민들이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활동하는 특별한 정치적 대표자는 없다. 가족의 지도권은 가족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남자 어른이 갖는다.

볼로벤족은 약간 독특한 결혼관습이 있는데, 결혼할 부부는 서로 동의해야만 한다. 초혼의 경우에는 신부비(bridal price), 노동(bridal service), 혼인지참금 등은 없다. 재혼의 경우에는 신랑은 두 번째 부인의 부모에게 신부비를 지불해야만 한다. 마을의 수장은 결혼식을 주례하며 결혼의식을 공인하는 서류를 만들어준다.

신앙

볼로벤 사회는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종교적 의식에는 조상숭배와 정령숭배와 같은 전통 민족종교의 모습을 많이 갖는다. 볼로벤족 사람들은 조상들의 영혼이 자신들의 생활에 관계

되며 개입하고 있다고 믿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조상의 영혼들을 돌보고 먹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또한 강, 숲, 산, 나무와 같은 자연 대상들의 영혼이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현무암 토질의 볼로벤 고원에는 다량의 광석이 매장돼 있다. 볼로벤 고원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나 잠재력과 가망성은 매우 높다. 고원에서 수력발전이 가능하고 알루미늄 광석이 생산되나, 철도가 없고 도로망이 엉망인 것이 주된 장애가 된다. 불충분한 자원, 부족한 인력, 부적당한 지식과 기술이 라오스 정부가 개발정책을 시행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켄터키주, 성경 선택과목으로 채택

미국 켄터키주가 성경을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했다. 매트 베빈 켄터키 주지사는 최근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선택과목으로 허용하고, 이와 관련된 주 정부 규정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3일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사회 전반에 기독교 전도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나온 것으로, 교육구를 관할하는 주정부가 성경을 공식 교과목으로 인정한 것이라 주목된다.

D. J. 존슨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달 주 의회에서 찬성 34표 대 반대 4표로 통과됐다. 존슨 의원은 "성경을 가르치길 원하는 지방 교육청이나 공립학교에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성경이 사회와 문화뿐 아니라 문학·법률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이를 가르치기 위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성경 과목은 성경의 내용과 등장인물, 시와 이야기 등을 가르치는 교과다. 학생들이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내용에 익숙해지도록 돕고 성경이 역사와 사회 각 분야에 미친 영향을 이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일부 학교가 성경을 가르쳤지만 주 정부의 공식 지침은 없던 상태였다. 성경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이 학생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학교도 많았다.

폴 키트우드 켄터키 침례교단 실행이사는 "그동안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많은 학생과 교사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밝히지 못했다"며 "법안 통과는 성경이 학교에서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 세계 종교탄압 3년 만에 증가

전 세계적으로 당국의 종교탄압과 종교와 관련된 사회적 대립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연구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이날 공개한 연구 보고서에서 정부 정책이나 사회적 대립에 따른 종교적 제약 수준이 2015년 전 세계 40% 국가에서 높거나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34%에서 증가한 것으로, 2012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3년 만에 증가로 돌아선 것이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정부의 종교탄압이 가장 높은 편이었으나, 증가 폭이 가장 큰 곳은 유럽이었다. 중동 등지에서 전쟁을 피해 달아난 난민이 유입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유럽에는 2015년에 전년도의 거의 두 배 수준인 약 130만 명의 이주민이 유입됐다.

종교 단체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탄압을 겪었으며, 특히 무슬림은 유럽 전체의 약 71%에서 사회적 적대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를 이끈 카타린 키시는 "유럽의 무슬림은 정부의 무력 사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무력 사용은 체포와 구금, 개인 자산 훼손, 추방 등을 포함한다. 특히, 테러 위협이 커지며 종교적 탄압이 더 거세졌다. 2015년에만 두 차례 큰 테러 공격을 당한 프랑스는 정부가 종교 단체에 200회 이상 무력을 사용한 유럽 국가 2곳 중 하나로 기록됐다. 나머지 한개 국가는 러시아로 최근 몇 년 사이 이슬람교, 사이언톨로지, 여호와의 증인 등 다양한 종교를 배척하고 있다.

러시아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 다수를 법정에 세웠으며 이 종교를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퓨리서치센터는 이슬람교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보유한 기독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탄



압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펜스 부통령 "하나님 도움으로 한반도서 자유 승리할 것"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전했던 메시지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됐다. 펜스 부통령은 한·미 양국 장병과 가족들에게 "여러분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반도에서 자유가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펜스 부통령은 부인 캐린 여사, 두 딸과 함께 참석한 이날 예배에서 "아주 특별한 부활절에 여러분과 함께해 감사하다"면서 "아내와 두 딸이 한국의 모든 분께 부활절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운을 뗐다.

펜스 부통령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신실한 백부장(마8:5-13, 눅7:1-10) 예화로 장병들을 위로했다. 그는 "나사렛 예수를 만난 군인은 집안 일꾼 중 하나가 병에 걸렸으니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 질문했다"면서 "예수님이 그와 함께 걸어가려 했을 때 군인은 '저와 동행해주시 필요는 없습니다. 제 권위 아래 있는 자에게 명령하면 그가 수행합니다'라며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나를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펜스 부통령은 "내가 감명 받은 점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군인과 만났을 때 놀라셨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일생동안 그분을 놀라게 한 유일한 사건으로, 주님은 권위로 복종하는 군인의 자세와 믿음을 보셨다"고 소개했다. 이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거룩한 날인 부활절, 저도 이곳 군인과 군인가족을 보면서 놀랐고 겸손해지게 됐다"고 격려했다.

펜스 부통령은 미 45사단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53년 동성무공훈장을 받은 부친인 에드워드 펜스 중령에 대한 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한국이 누려온 자유와 성공 뒤에는 60년 전 한국과 미국의 군인이 함께 싸웠던 희생이 있었다"면서 "오늘 부활절에 큰 감동을 받은 것은 이곳에서 전쟁을 치른 군인 중 한 사람이 저의 아버지였기 때문"이라고 회고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29년이 지났지만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살아계신다"면서 "아버지도 자신이 오래전 다녀간 이 땅을 방문하는 셋째 아들과 오래전 전쟁터에서 희생의 결과로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보고 있을 것"이라며 감격스러워했다.

펜스 부통령은 "전 세계 특히 태평양 지역에 다양한 도전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의 역사적 동맹이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는 사실과, 여러분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반도에서 자유가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6선 하원의원과 인디애나 주지사를 역임한 그는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크리스천 정치지도자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내가 아닌 여성과는 단둘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던 과거 발언이 최근 화제가 됐다.

화재로 모든 것 잃은 부부 "단 한 가지는 남았다"

차고에서 난 불이 집에 옮겨붙으며 모든 것을 태웠다. 그러나 단 한가지를 제외하고.

최근 미국의 보도매체 갓바인은 미국 테네시주에서 발생한 화재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다.

테네시주에 사는 저스틴과 신시아 바그너는 일요일 밤 막 잠자리에 들었을 때 불쾌한 냄새에 신경이 곤두섰다. 부부는 이 냄새가 무엇이 타고 있는 냄새임을 금세 알아차렸다. 부부는 곧장 밖으로 나갔다.

냄새는 집 바깥에서 나고 있었고 저스틴은 현관에서 차고에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집과 차고 사이에 있는 차를 움직이려고 했지만 이미 화염이 차를 덮치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내 아내



분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반도에서 자유

에게 말했어요. '차를 버리고 빠져 나갑니다. 다른 것은 걱정하지 말고 소방대원에게 맡겨요.'

그것은 옳은 판단이었지만 전 재산이 타버리는 것을 눈앞에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화재로 인해 차고가 파괴됐고, 2층짜리 집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차를 완전히 망가뜨렸다. 저스틴은 "우리가 소유한 거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저스틴과 신시아는 그 다음날 잿더미를 파헤치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살아남았음을 발견했다. 재 속에는 부부의 성경이 있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타 버렸고 책의 가장자리가 불에 탔으나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열려 있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스틴은 "이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위해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부부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성경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분명한 신호였다. "어쩌면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보았을 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안심시킨 것처럼 느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해 너의 삶을 구했다. 나는 너희가 이 땅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길 원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세계 최고령 할머니, 장수 비결은 '일과 기독교 신앙'

바이올렛 브라운은 자메이카 서부의 집 주변에서 사탕수수를 자르는 일로 생애의 대부분을 보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했고,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피했으며 지난달 117번째 생일을 맞았다. 지난 15일 1899년 11월 29일에 태어난 이탈리아의 엠마 모라노가 사망하자 그녀는 '세계 최고령자' 타이틀을 갖게 됐다.

미국 보도매체 폭스에 따르면 브라운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놀랐지만 오랫동안 살아온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며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브라운은 1900년 3월 10일생이다. 그녀는 미국 노인학연구소(Gerontology Research Group)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령자다. 이 소식에 전해지자 자메이카의 총리 앤드류 홀네스는 트위터에 브라운의 사진과 함께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브라운은 두 명의 간병인을 두고 있으며 집에서 휴식하며 97세의 아들과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녀는 혼자 앉아서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다. 그녀는 청력은 많이 나빠졌지만 가족에 대한 질문에는 신속하게 대답하는 민첩함을 보였다.

그녀는 장수의 비결을 일과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했다. "나는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노래하고 싶어요. 어린 시절부터 오늘까지 모든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어요."

F. 그레이엄, 친트럼프 행보에 전도집회 타격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장남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의 정치적 행보가 논란이 되면서 그가 이끄는 대형 전도집회인 '페스티벌(Festival)'이 타격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그의 정책을 지지해온 그레이엄 목사에게까지 번진 셈이다.

19일 미국 크리스챤네티투데이와 크리스천포스트 등에 따르면 최근 노르웨이 교계 지도자들은 오는 11월 11-12일 오슬로에서 예정된 페스티벌 집회를 취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레이엄 목사의 연행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르웨이 야그레고르대학 스테판 피셔 호이럽 종교역사학 교수는 "미국 45대(트럼프) 대통령과 그레이엄 목사의 밀접한 관계는 유럽에서의 복음 증거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다"며 "오슬로 크리스천 지



도자들은 (페스티벌 집회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노르웨이 복음주의권에서 그레이엄 목사의 신학을 공유하는 최대 크리스천 싱크탱크도 그레이엄 목사와 교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레이엄 목사는 대선 때 트럼프 후보를 공개 지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보수적 기독교 가치를 내세우며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간접적으로 호소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페스티벌 집회 주최 측은 일단 예정대로 오슬로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페스티벌 사업팀 관계자는 "집회는 오직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춘다. 예수 그리스도"라며 "집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우리의 희망은 오슬로 사람들이 와서 듣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 초 페스티벌 집회를 위한 오슬로 교회 목회자 초청 모임에는 5명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레이엄 목사의 페스티벌 집회에 대한 반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3-5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렸던 집회에서는 일부 기독교인들이 피켓을 들고 반대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예수는 난민이었다' '증오가 아니라 희망이다' 등의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었다.

지난 2월 10~12일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에서 열린 페스티벌 집회에서도 교계 지도자들이 집회 전에 성명을 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 공격하는 트럼프의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며 "트럼프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레이엄 목사도 하나님나라의 가치를 위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적·장래 스트레스…韓학생 삶 만족도 세계 최하위

한국 학생의 행복도를 나타내는 삶만족도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 가운데 '꼴찌'와 다름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OECD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일환으로 OECD 회원국을 포함한 72개국 15세 학생 54만명을 대상으로 평균 삶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6.36을 기록했다.

OECD는 지난 2015년 각종 학생들에게 '최근의 생활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0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서 10점(충분히 만족한다)까지의 점수를 스스로 매기게 했다.

한국의 지수는 OECD 회원국 평균(7.31)을 크게 밑돌 뿐 아니라 우리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한 회원국은 터키(6.12)가 유일했다. 멕시코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점수인 8.27을 받은 가운데 핀란드(7.89), 네덜란드(7.83), 아이슬란드(7.80), 스위스(7.72)가 뒤를 이었다. 미국은 7.36점을 기록했다.

주요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한국은 학생 응답자의 절반이 겨우 넘는 53%가 삶에 아주 만족하거나 만족하고 있다고 답해 OECD 평균인 71%보다 한참 못 뒤쫓았다. 특히 한국 학생 응답자 22%가 가장 낮은 삶만족도를 뜻하는 4 이하의 점수를 쳤다. 이는 OECD 평균(12%)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또 한국 학생의 75%는 "학교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것에 대해 걱정한다"고 답했는데 이처럼 응답한 비율은 OECD 평균 66%보다 9%포인트 높았다.

이를 종합해볼 때 한국 학생들의 만족도가 나체 수준인 데에는 학업과 장래에 대한 높은 부담감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한국 학생들의 학습 성취 욕구는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학생 응답자 중 무엇을 하던 최고가 되고 싶다고 답한 비율은 80%에 달했고, 반에서 가장 잘하고 싶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82%나 됐다. 이는 각각의 OECD 평균인 65%, 59%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다.

OECD 측은 한국과 중국, 일본 학생들이 독해와 수학에서 높은 성적을 받았지만 삶에는 덜 만족하고 있다며 "뛰어난 학습결과는 좋은 삶의 만족을 희생하면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가 학생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체와 건강교육을 통해 활동적이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의 태도를 가르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25. 신흥우(1882-1959)

신흥우는 1882년 충북 청원에서 출생했다. 한학을 배우던 중 그는 개화사상에 눈을 뜨고 1894년에 아펜젤러 선교사의 배재학당에 입학한다. 그는 서재필 등과 협성회를 조직해 정치토론을 벌이며 근대화운동에 참여하였다. 1899년 배재학당을 졸업한 후 그는 1901년 한성외국어학교 독일어과에 입학한다. 그때 정치개혁을 주장하다 투옥되었는데 이곳에서 이승만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이 무렵 해리 C. 셔먼 박사 등의 구명운동에 힘입어 신흥우는 1903년 초 출옥한다. 그는 셔먼 선교사의 모교인 남가주 의과대학교를 소개받고 유학을 꿈꾸었다.

셔먼 여자선교사

1898년 2월 프로렌스 셔먼 선교사는 미국 북감리교 의료선교사 해리 C. 셔먼 박사와 함께 내한했다. 셔먼 박사는 광혜원에서 의료 사역을 담당하면서도 제물포, 원산, 평양, 수원, 공주 등지에 순회 진료 사역을 감행하다 과로로 병을 얻어 1900년 도미하였으나 그 해 7월 25일에 향년 31세의 나이로 나성에서 소천하였다. 이후 셔먼 선교사는 두 자녀를 기르며 나성 거주 한인 선교에 투신하여 자신이 출석하는 나성제일감리교회는 한인 선교를 앞장섰다. 그녀는 1903년 4월에는 나성 인근 포모나 제일감리교회의 '젊은부인 해외선교부'에서 한인 사역을 보고하는 등 한인 선교를 위하여 백인교회로부터 기도 후원과 재정적 후원을 도모했다.

도미

신흥우는 25세가 되던 1903년 도미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나성에 도착했다. 이듬해 그는 셔먼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남가주대학교 별과 학생으로 2년 과정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그의 영어 이름은 Hugh Heungwo Cynn으로 썼다.

학업을 돕는다는 등의 목적을 세웠다. 한인들은 주일 아침에는 나성제일감리교회 영어 예배에 참석하고 곧 이어 셔먼 선교사가 인도하는 주일학교에 참석했다. 주일 오후 한인 예배처소에서 한국어 주일예배가 있었는데 신흥우 외에도 유학생인 김우제도 설교를 담당했고, 셔먼 선교사가 설교할 경우 신흥우가 통역을 맡았다. 주일예배 외 토요일 에프웁스 청년회와 금요일 성경공부반을 운영하며 전도하였다. 이곳에서 예수를 믿고 한국에 있는 가족을 전도한 자들도 있었다. 교인들은 거의 유학생이었는데 미국인 나성제일감리교회에 등록하였다. 본 예배처소는 북미에서 최초로 세워진 한인교회가 된다.

은 한국 교회의 삼자 운동을 연상케 한다.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한인 유학생들은 노동하면서 생활비를 조달했고, 기숙사비도 납부했다. 기숙사생은 한인 이민자가 나성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구입하여 자취를 하였다. 1904년 12월에 이승만과 장흥범 등도 이 기숙사에서 잠깐 거주했다. 신흥우는 셔먼 선교사 가정과 함께 입대한 건물에 거주하면서 위급할 때 신속하게 한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대기했다. 1906년 3월 28일 자의 공립신보에 따르면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 500여 명 가운데 장로교인이 세례교인 59명과 원입교인 53명으로 총 112명이었고 감리교 교인은 총

만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유학생도 있었다. 이 해 8월 신흥우가 남가주대학교 3학년에, 신봉희가 남가주대학교 예비과 3학년에, 남궁염이 본 예비과 2학년에, 방화중과 이순기가 중학교 2학년에 그리고 전시중이 1학년에 재학했다. 미약하지만 예배처소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음에 자부심이 컸고, 본 한인 사역이 한인 선교사 훈련학교와 방불하여 이들 한인들이 한국과 미주의 한인들에게 끼칠 큰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었다. 나성 한인 사역은 '일본 사역' 하에 있었으나 '나성 도시선교회'의 별도 사역으로 구별되었다. 1908년에는 '나성 도시선교회' 외에 남가주대학교 이사였던 A. W. 애드킨슨 박사와 남가주 연회 감독이 특별히 협력하였다. 1908년 현재

매그놀리아 예배처소

1909년 나성 한인 사역이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연회로 이임되어, 본 연회 감독인 존 W. 와드만 목사는 한인 사역을 위하여 300불의 예산을 청구하였다. 이듬해 예배처소가 매그놀리아 예비뉴 1620번지로 이전했다. 그런데 그 해 1월 16일 주일 밤 교회 재정 조사라는 이유로 구타하고 칼로 옷을 찢는 등 교단내에 풍파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해 봄 재정 부족으로 한인 사역을 폐쇄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교인들이 매삭의 연금을 내어 한인 사역을 유지기로 결정하고 신흥우와 남궁염이 계속 사역기로 하락했다.

1904년 특별학생으로 입학하여 2년 과정을 수료한 후 신흥우는 1905년과 1906년에 걸쳐 의과대학교에서 공부하였는데 그 후 문과대학으로 옮겨 1910년 문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재학 당시 학생자원운동에 가담하여 세계선교에 눈을 떴다. 졸업하던 1910년 당시 그는 한인 예배처소에 딸린 방에서 아내 이소사(영어이름 이레인)와 1909년 나성에서 태어난 딸 프로렌스와 거주했다. 그의 딸 프로렌스는 미국 생활의 은인인 셔먼 선교사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 셔먼 선교사 가정도 거주했다. 셔먼 선교사는 한인 사역 이외에 12세의 해리와 10세의 체스터 등 두 아들의 양육을 위하여 재봉사로 활동했다.

1910년 한일합방 소식을 들은 신흥우는 공립신보에 "오의 심자 중대한국"(吾의 心自中大韓國)이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글의 부제대로 한인들에게 "현상에 낙심 말고 장래의 희망을 두라"고 격려했다. 이듬해 남가주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가 쓴 논문, "한국의 재생(The Rebirth of Korea)"에서 한국의 자주독립 정신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만든다는 믿음을 적었다.

귀국

1911년 4월 신흥우는 한국으로 귀국한다. 이에 유학생이었던 남궁염, 홍승학, 그리고 엄달육이 설교를 맡다가, 남가주대학교에 유학온 민찬호가 신흥우를 이어 부임하게 된다. 그런데 민찬호가 나성한인장로교회로 전임하던 1912년에 한인 감리교 예배처소는 사실상 문을 닫게 된다. 귀국한 신흥우는 1912년 배재학당 학당장에 취임했고, 1959년 별세하기까지 교육계와 정치계에서 활동했다.

damien,sohn@gmail.com



셔먼 선교사와 두 아들



아래 줄 오른쪽부터 신흥우, 장흥범, 이승만. 1904년



남가주 대학교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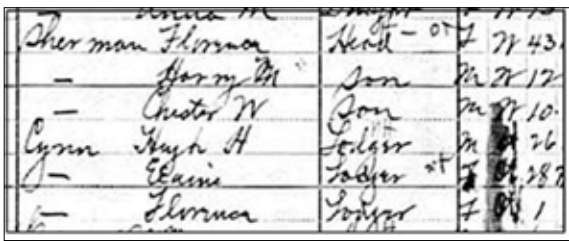
북미 최초한인교회 나성한인연합감리교회 전신 나성제일감리교회서 설교
1908년 법정통역과 문서선교...재학시 학생자원운동 가담 세계선교 논뉼
1911년 귀국 배재학당 학당장 역임, 별세까지 교육계와 정치계에서 활동



사우스 힐 스트리트 한인 예배처소 건물, 셔먼 선교사가 오른쪽 첫 번째에 서 있다

힐 스트리트 사역

미국남감리교 남가주 연회는 셔먼 선교사를 한인 선교 책임자로 임명하고 그녀의 지도하에 신흥우를 평신도 목사로 임명한다. 1904년 3월에 '사우스힐 스트리트 1519번지'의 건물을 임대하고 한인가족사와 한인 예배처소를 마련한 후 나성 거주 한인들에게 기독교 가정을 만들고, 한인 이주자에게 직장을 알선하며, 한인 유학생들의



1910년 인구조사. 셔먼 선교사와 신흥우의 가족 상황이 보인다.

본 교회는 2017년 현재 나성한인연합감리교회가 되어 있다.

그리고 매일학교를 개설하여 셔먼 선교사가 교장이 되고 한국인 유학생들이 교사가 되어 한인들을 가르쳤다. 이 매일학교는 여름 방학 때 정규 학교 제도를 가동하여 남가주 대학교, 학원 Academies,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유학생이 공부할 경우 한 두 학년을 월반할 수 있었다. 본 매일학교가 학교 내에 '고용부'를 두어 학교 재정을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것

80여명이었다. 이 80여명이 신흥우의 목회 영역에 포함되었다고 보면 된다. 나성 예배처소에는 교인이 많지는 않았지만 범사에 '재미있게' 지냈다는 신문기사가 있다. 그런데 신흥우가 1906년 1월 평신도 목사직을 사임하고 김우제가 그 뒤를 잇는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신흥우가 계속 교회를 섬겼던 것으로 보인다. 1907년 남가주 연회는 한인 예배처소가 부흥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1908년 한국 정치 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가운데 나라 걱정에 귀국하는 유학생도 있었지

재적수는 신흥우를 포함하여 16명이었다. 한 달 건물 대여비가 18불이었고, 셔먼 선교사의 한 달 봉급이 25불이었던 반면에 신흥우의 한 달 봉급은 20불이었다. 이로써 한인 사역에 필요했던 예산은 한 달에 60불이었고, 1년에 756불에 이르렀다. 미국 남감리교의 '내지선교부'와 '교회연장부' 등 두 기관이 285불을 헌금했고, 그 외는 '나성 도시선교회'가 후원했다. 그리고 기숙사비는 교회 운영비로 사용했다. 1908년 나성의 한트 부인은 비록 가난했지만 '주머니'를 손수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을 한인 전도를 위하여 헌금하여 다른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1908년 신흥우의 사역은 교회를 넘어선다. 그 해 3월 친일 외교관인 미국인 더럼 W. 스티븐스를 저격한 사건으로 상황에서 재판을 받던 장인환과 전명운의 법정 통역을 맡았고, 그 해 12월 상한한인 감리교회가 발간한 '대도보'에 기고하여 문서 선교에 발을 디뎠다.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450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이미경 간사 1-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토요칼럼

진리(眞理)가 무엇인가?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진리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허위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진리(眞理)의 일반적인 뜻은 '참된 도리'이지만 사전은 그리 간단하거나 쉽게 설명하지 않는다. 어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과 대답이 진리가 아닐까 싶다. 사전의 설명을 보자.

“진리에 대한 생각은 크게 대응설적 이론과 정합설적 이론으로 나누어진다. 대응설적 이론을 거슬러 올라가면 중세의 진리에 대한 정의의 ‘사고와 존재의 합치(adaequatio intellectus et rei)’를 거쳐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미친다. 현대에는 영국의 철학자 G.E. 무어의 ‘철학의 몇 가지 주요문제 Some Main Problems of Philosophy’(1953)에서 다시 주장되었는데 그 요지는 ‘하나의 진술은 그것이 사실에 대응하면 참이고 사실에 대응하지 않으면 거짓

이다’라는 것이다. 정합설적 이론은 대응설적 이론을 비판하면서 발전한 진리관으로, 독일의 철학자 루돌프 카르나프의 ‘언어의 논리적 구문론 The Logical Syntax of Language’(1937)에서 전개되었다. 카르나프에 따르면 진리는 명제들의 일관성과 동일한 것으로, 하나의 명제는 선택된 명제들의 집합(corpus)과 정합하지 않을 때 거짓이고 그 집합 속에 명제가 정합성을 포함할 때 참이 된다. 이외에 프로타고라스에 의한 진리의 인간적 도설, 만민의 일치(consensus gentium)가 진리라는 설, 진리의 기준이 지식의 유효성에 있다고 하는 실용주의 진리관 등이 있다. 살펴볼수록 어려운 학설이며 논쟁이다.

다른 사전에서는 진리(眞理)는 사실이 분명하게 맞아 떨어지는 명제, 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

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사실 혹은 참된 이치나 법칙을 뜻한다. 참, 진실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누구나 인정하고 보편적인 것이라 해도, 그것이 항상 진리가 아닌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2700년 전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였고 바다 끝에 가면 떨어질 것으로 믿었다. 그 당시 그것이 진리며 참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다. 따라서 모두가 인정한다 해도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더 정확한 뜻은 사람의 생각, 지식, 견해 등에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는 정확한 사실을 진리라 말할 수 있다. 진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여 철학, 논리학, 수학에서 다양한 개념으로 쓰인다. 논리학에서는 명제가 사유 법칙에 맞아서 오류가 없는 사고의 정당함을 일컫는다.”

이상은 백과사전이 설명하는 진리다. 그러나 이런 논리적 설명으로 우리는 진리에 다가서는 것이 쉽지 않다. 전문가 또는 학자들이라면 모를까 험한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보통(일반)의 사람들은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워지는 까닭이다.

유대인들에게 잡혀 재판에 넘겨지신 예수님이 빌라도의 심문을 받으며 하신 말씀을 들어보자. “빌라도가 이르도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도 진리가 무엇이나 하더랴”(요18:37, 38).

진리는 영원히 없어지지지도 변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님 말씀하신 것들뿐이다. 그럼에도 사람은 진실이나 사실을 진리와 혼동한다. 사전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믿거나 인정한다고 하여 진리가 될 수 없다. 사전에서 철학, 논리학, 수학을 들먹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그 누구라도 무오(無誤)하지 못하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천명하고 있다. 사람

의 깨달음이 깊어 넓어 우주에까지 미친다 해도 원래부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절대로 없다.

진리가 무엇이나고 묻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침묵하였다. 그가 광오(狂傲)하게 외친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신 뒤 그와는 말할 상대가 아니라고 무시하신 것이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그럴 전도의 사리분별도 못하는 빌라도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도 그는 알아듣지도 깨달을 수도 없음을 아셨기 때문이다.

이 땅의 주도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진실이나 사실에 불과하다. 영원하지 못한 까닭이다. 우리는 진실 혹은 사실이라고 여기는 것들의 오류와 의도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세월호가 인양되었다. 진상위원회가 조직되고 아몰었던 상처를 다시 헤집고 있다. 기왕에 인양이 되었으니 미 수습된 실종자들을 찾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다만 세월호가 침몰된 원인을 규명하는 문제는 별개다. 침몰된 원인을 모르는가? 말이 안 되는 억지다. 안전은행·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 그 나머지를 더 규명하여 달라질 것은 별로 없다. 책임공방으로 더 큰 불신과

반목을 조장할 뿐이다. 이미 사라졌거나 감춰진 진실을 찾고자 하는 것은 명분을 얻어 다른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다.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죄의 삶이 사망이기에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진리다. 예수님이 그러셨다. 죄를 사람이 지었으나 사람은 그 죄를 해결할 방법도 여지도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모든 자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단순히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죄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시므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인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다.

이 놀라운 진리를 세상에 속한 빌라도에게 설명을 하거나 논쟁을 해도 그는 이해부득의 미망이 더해서 절대 깨닫지 못할 것이기에 예수님은 차라리 침묵하신 것이다. 진리란 이 세상의 학문이나 논리나 계산으로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그리고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hanmac@cmi153.org

미주성결교회 신임 총회장에 이상복 목사
제38회 총회, 부총회장 최경환 목사, 황규복 장로

제38회 미주성결교회 총회가 "함께하는 성결교회(막14:12)"란 주제로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LA 북부 우드랜드 힐스 힐튼 호텔과 노스힐라이트에 있는 연합선교교회(담임 이상복 목사)에서 열렸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남미 지역에 있는 11개 지방회 소속 2백여개 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신임 총회장에 이상복 목사(연합선교교회, LA)가 선출됐다. 그러나 부총회장 선거에서 당선 요건인 투표참가인원 3분의2 득표가 이뤄지지 않아 재투표가 실시됐다.

재투표 결과 목사 부총회장엔 최경환 목사(시온성결교회, LA)가 선출됐으며 이어열린 장로 부총회장 투표에서는 황규복 장로(로아일랜드교회)가 선출됐다. 그리고 서기 황영송 목사(뉴옥수정교회), 부서기 이병립 목사(바나바교회, 캐나다), 회계 한상훈 장로(산호세중앙교회, 북가주), 부회계엔 장석면 장로(뉴욕교회)가 각각 선출됐다.

17일저녁 열린 개회예배에서는 총회장 황하균 목사가 "내 손에는 무엇이 있는가?"란 제목으로 설교했고 직전 총회장 조종곤 목사의 인도로 성찬예식이 열렸다. 이어 한국에서 온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여성삼 목사와 OMS 총재 밥 페터린(Bob Fetherlin) 박사가 축사했다.

이어 미주성결교회와 OMS간의



제38회 미주성결교회 총회에서 신임임원 선거를 마치고 신규임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우측 세번째가 신임총회장 이상복 목사 네번째가 신임 목사부총회장 최경환 목사

선교함의각서에서 서명하고 총무 이홍근 목사의 광고 후 교단가인 '성결교회의 노래'를 부르고 전 총회장 박수복 목사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둘째 날인 18일 오후에는 미주성결교회 목회자 은퇴연금에 대해 웨슬리안 연금기금(The Wesleyan Pension Fund) 관계자들이 참석해 설명회를 가졌으며 저녁에 열린 선교특강에선 밤 페터린 박사가 OMS(One Mission Society)의 선교비전을 소개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Living Water)를 주셨다. 이 생수가 온 나라와 민족에게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 생수가 흘러가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겸손하고 온유해야 한다. 우리 OMS는 앞

으로 십년동안 10억 명의 사람들에게 적어도 한번은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도 복음의 빛이 들 어가지 않은 어두운 대륙과 인종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운동에 미주성결교회가 동참해 위대한 결실을 이루어가자"고 당부했다.

19일 저녁에 연합선교교회에서 열린 목사 안수식은 이상복 총회장의 예식사와 서약, 목사안수후에 황하균 직전 총회장의 파송기도, 김광렬 전총회장의 권면, 고남철 전총회장의 축도로 진행되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는 교역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경수, 문인호, 박지훈, 이경호, 이진경, 이삼열, 이연승, 정연걸, 정한옥, 조순정, 황신우, 루웬싱.

〈박준호 기자〉



HYM 대표로 섬기고 있는 더글러스 김 선교사

‘My Witness’ 주제, 강사 강대형 목사
36회 HYM청년연합집회, 29-30일 아름다운교회

제36회 HYM청년연합집회가 오는 29일(토)과 30일(주) 양일간 저녁 7시에 아름다운교회(담임 고승희 목사)에서 열린다. 주제는 ‘My Witness(행1:8)’이며 강사는 강대형 목사(수지선한목자교회 담임).

18년이라는 기간 동안 꾸준히 집회를 가져온 유일한 청년선교단체인 HYM 대표 더글러스 김 선교사는 “집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시대 남가주지역의 청년들의 성령

부흥운동을 하기위해 달려왔다”며 “처음 집회를 할 때 참석청년들의 숫자는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120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에서 청년들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거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즉 교회의 미래가 심각할 정도로 위기상황이라는 것”이라 말했다.

이번 집회강사 강대형 목사는 한 국청년들에게 선했던 영향력을 많이

끼쳐온 목회자로 남가주청년들에게도 영적인 도전의 말씀을 전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선교사는 “HYM집회를 열어 오면서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가 강사였다. HYM집회를 갖게 되면 주제를 정하게 된다. 주제는 그냥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HYM스텝들이 기도를 통해 마음을 모아 정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주제라는 생각한다. 주제가 정해지면 선정된 강사에게 주제와 주제에 맞는 성경구절을 전해준다. 그러나 많은 경우 강사가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지만 강대형 목사의 경우 먼저 주제에 대해 물어왔다. 이는 그만큼 집회에 대한 마음이 남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왜 한국의 청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라 말했다.

김 선교사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불과같이 일어났으면 한다”며 남가주지역의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714)393-5135
(박준호 기자)



2017 LA 기윤실 기획 세미나 종교 개혁 500주년 기념 특별 강연에서 강사로 나선 권연경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강사 권연경 교수
LA기윤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별강연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대표 박문규 교수, 이하 LA기윤실)이 4월 13일 오후 6시30분 캘리포니아국 제대학(CIU) 강당에서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가꾸는 그리스도인’이란 주제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권연경 교수(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는 “현재의 한국교회는 ‘갈 때까지 간 비참한 현실’, ‘임계지점을 이미 지난 구조할 수 없는 타이타닉’의 상황에 놓여 있다”며, “그 증상들로 목회자와 성도들의 타락, 도덕성 상실, 사회적 순화 기능의 상실, 교회 세습이라는 새로운 문화의 정착, 교회의 정치세력화, 즉 성경의 가르침 대신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휘둘리는 현상”이라 지적했다.

권 교수는 “당시 가톨릭교회에서

는 ‘공로 사상’이 ‘타락한 교회의 욕망을 채우는 신학적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해서 루터는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전적인 의존으로서의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기어 가능성을 지우고자 했지만,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500년이 지난 현재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종교개혁의 유산 지우기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은혜’(Sola gratia)라는 신학적 사상은 공로 사상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세속적 욕망의 전횡’을 방조하는 편리한 신학적 장치’, ‘개혁적 기능을 상실하고 새로운 체제 옹호 이데올로기가 된 개혁신학’

이 되어버림으로써 종교개혁을 통해 세속적 욕망을 고발하던 신학적 검찰이 욕망의 변호사로 변신했다”고 비판했다.

권 교수는 또 오늘날 교회는 ‘제왕적 권위에 대한 맹목적 복종으로서의 신앙’, ‘자발적 깨달음과 책임 있는 결단대신 인간적 권위에 맹종하는 종교적 메조키즘’에 빠져있고, ‘목회자의 설교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하는 또 하나의 “화체설”을 통해서 가톨릭보다 더 가톨릭적인 모습을 보인다면서 신앙의 맹목성, 무비판성과 한국교회의 “아멘!” 문화를 비판했다.

권 교수는 “욕망 치유의 신학적 무기였던 믿음과 은혜의 논리가 이제는 욕망 정당화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벗겨내는 신학적 수단으로 왜곡됐다”며, 믿음과 은혜의 언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려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의 한국교회는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지점을 지났으며, 내적 정체성과 사회적 존재 의의를 상실하면서 소멸되는 과정”이라고 진단하고, “규모와 힘의 신화를 벗고 소수종교(minority religion)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선명한 정체성으로 드러나는 교회, 세속적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생명의 가치에 이끄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이뤄지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213)387-1207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박준호 기자)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킹 미서부 LA지부(KOWIN LA)가 주최한 2017년 차세대 컨퍼런스가 '감히 꿈꿔라! 빛나고 날다(Dare to Dream II Shine _ Fly)'라는 주제로 22일(토) 오후 5시 허핑턴 센터에서 300여명의 차세대 여성리더와 관계자들이 모였다.

“감히 꿈꿔라! 빛나고 날다” 주제
KOWIN LA 컨퍼런스 300여명 참석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킹 미서부 LA지부(KOWIN LA 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of Los Angeles 회장 오은영)가 주최한 2017년 차세대 컨퍼런스가 ‘감히 꿈꿔라! 빛나고 날다(Dare to Dream II Shine & Fly)’라는 주제로 22일 오후 5시 허핑턴 센터에서 300여명의 차세대 여성리더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오은영 회장은 “각 분야의 전문인들이 모인 가운데 열리게 된 컨퍼런스에 차세대들이 우리 세세대대들의 성공담을 듣고 자신들에 맞는 곳에 실력을 쌓고 인성을 길러 멋진 친구존에 올곧은 리더들이 됐

면 한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주신 동포사회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영상 축하메시지에서 “지금 세계는 스마트 기술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나라 안팎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여성이 사회 곳곳에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다”라 언급하고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세계 속에 한인시대를 여는 역동적 에너지가 이곳 LA에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갈 수 있기를

〈박준호 기자〉

가주지역 2017년 부활절연합새벽예배 일제히

OC&중부연합, 사우스베이, 벤추라카운티, 샌퍼난도 밸리, 빅토밸리, LA

남가주 지역 2017년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가 각 지역에서 일제히 개최됐다.

중부교협(회장 최국현 목사)과 OC교협(회장 이호우 목사) 공동주관으로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열린 부활절연합예배는 최국현 목사 사회로 시작, 조현영 목사(OC교협 수석부회장)이 대표기도를, 전준홍 장로(OC교협 후원 이사장)이 성경 봉독했다.

이어 감사한인교회 성가대가 특별찬양했으며 김영길 목사(중부교회협증경회장)가 '부활, 사랑의 고통에서 풀려남'(행2:22-24)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특별기도시간을 가졌는데 김익현 목사(OC목사회 회장)이 '한국과 미국의 영적각성을 위하여', 엄재선 장로(OC장로협의회 회장)가 '교회갱신과 부흥과 세계선교를 위하여', 이관우 장로(OC형신도연합회 회장)가 '중부지역 교회와 OC 지역 교회의 연합과 복음화를 위하여', 신현철 목사(OC교협 기획부회장)가 '다음 세대의 비전과 헌신과 부흥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도 인도했다.

이어 중부교협임원들이 헌금위원으로 나선가운데 헌금순서를 가졌



남가주지역 부활절연합새벽예배가 각지역별로 일제히 실시됐다. 사진위는 감사한인교회에서 열린 OC교협과 중부교협이 공동주최한 부활절예배에서 합심기도하는 모습, 사진아래는 토렌스제일장로교회에서 열린 사우스베이 지역 연합예배에서 사우스베이 한인목회자들의 봉헌독송하는 모습

으며 테너 오위영 목사 특송했으며 민경엽 목사(OC교협 증경회장) 축도로 마쳤다.

사우스베이 지역 부활절 연합예배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라는 주제로 토렌스제일장로교회(담임 고창현 목사)에서 오전 5시 30분부터 사우스베이목사회(회장 윤목 목사) 주관으로 드려졌다.

안병권 목사(사우스베이목사회 총무)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이

황영 목사 대표기도, 연합성가대 찬양, 윤목 목사 '부활과 선물'(요 20:19-23) 제목의 설교 등의 순서로 드려졌다. 이어서 △이 지역의 복음화 △미국과 다음세대를 위하여 △한국의 안정과 정치, 그리고 북한 동포들과 통일을 위하여 등의 각각의 주제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합심 통성기도 후에는 이 지역 목회자들이 다함께 특별찬송한 후 이기홍 목사의 축도를 끝으로 예배를 마쳤다.

벤추라카운티는 벤추라카운티교역자협의회(회장 승광철 목사) 주관으로 카마리오연합감리교회(담임 이상영 목사)에서 가졌다.

이상영 목사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김경옥 목사(벤추라열린문자로교회)가 기도를 남채현 목사(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가 설교, 권

혁래 목사(카마리오커뮤니티한인교회)가 헌금송 했으며 조인 목사(카마리오제일장로교회)가 헌금기도를 하고 승광철 목사(새생명교회)가 축도했다.

샌퍼난도 밸리 지역은 오전 5시 30분 밸리연합감리교회에서 류재덕 목사의 사회로 열렸다.

곽덕근 목사(은혜와 평강교회)가 기도한 후 서오석 목사(나성평화교회)의 성경봉독, 밸리연합감리교회 성가대의 찬양, 그리고 문일명 목사(한우리장로교회)가 '부활신앙'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서 나형길 목사(그이름교회)의 헌금기도, 김창수 목사(밸리지역원로, 은퇴목사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연합예배에서 드려진 헌금은 밸리지역 장학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인랜드 지역은 인랜드교역자협의회(회장 강문수 목사) 주최로 연악교회(담임 오경환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승리한 부활, 실패한 부활'이란 제목으로 강문수 목사가 설교했다.

빅토밸리지역은 빅토밸리한인목사회(회장 고승경 목사) 주최로 필랜중앙장로교회(담임 고승경 목사)에서 실시됐다.

김송국 목사(새생명한인교회)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이범규 장로(필랜중앙장로교회)가 대표기도했으며 연합성가대 찬양이 있는 후 김성일 목사(빅토빌 예수마을교회)가 '부활과 회복'(막 16:9-2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우정은 목사(열린문기도원)가 봉헌기도 했으며 유진선 목사(빅토빌한인원로목사회 회장) 축도로 마쳤다.

한편 LA는 오전 6시 세계야가페선교회(김의환 목사)에서 동부지역은 할렐루야한인교회(담임 송재호 목사)에서 인랜드 지역은 연악교회(담임목사 오경환 목사) 가졌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제8회 사랑의 무료 아이캠프

국제의료선교단체 비전케어 미주서부(이사장 이창엽)와 화랑리요를림(회장 사라박)이 오는 29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LA총영사관 주차장에서 '제8회 사랑의 무료 아이캠프'를 연다. 이 행사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한인들에게 무료로 진행되며, 검진결과 배내장 질환이 발견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환우들은 무료로 배내장 수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213)281-2617

LA사랑의교회 제 8차 의료사역축제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는 제 8차 의료사역축제를 '주안에서 건강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오는 5월 7일(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버질중학교에서 갖는다. 검사분야는 기본혈액검사, B형간염, 당뇨, 갑상선, 전립선, 골다공증, 한방치료, 침술 및 의료보험 상담이며 혈액검사를 받는 자들은 최소 8시간 금식해야 한다.

▲문의: (818)270-5454여옥제 전도사, (213)840-3761박영백 집사

그림으로 설교하는 남상국 목사

전세계 복음전파 1차 부흥회 추진모임

그림으로 설교하는 OC목사회 부회장 남상국 목사 전 세계 복음전파 1차 부흥회 추진모임이 22일 오전 11시 라팔마에 위치한 ONE BBQ식당에서 가졌다.

이날 모임은 백태현 목사(길벗교회 원로), 김영찬 목사(효사랑교회), 김인구 목사(아버지학교), 이

호우 목사(OC교협회장), 김기동 목사(연복교회)를 비롯한 후원자들이 함께 모였다.

한편 1차 부흥회는 6월 남가주, 8월 뉴욕과 뉴저지, 10월 한국과 일본에서 열리게 된다.

▲문의: (949)285-7242

(기사제공: OC목사회)



미주복음방송 취임식을 마치고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은혜로 감당” “신뢰하는 방송으로”

GBC 미주복음방송 이사장 및 사장 취임식

GBC 미주복음방송의 새로운 이사장 및 사장 취임식이, 지난 4월 16일 오후 5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웨딩채플에서 열렸다.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된 축하예배는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의 기도으로 이어졌으며, 이날 설교는 월드미션대학교 총장이며, 미주복음방송 3대 사장을 사역한 송정명 목사가 '일어나 분명한 나팔을 불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말씀 후에는 이사장 한기홍 목사, 사장 이영선 목사 순으로 취임식이 진행됐다. 이어 신승훈목사(

주님의영광교회), 김준식 목사(남가주샬롬교회)가 축사와 김한요 목사(베델한인교회) 노창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의 영상축하 메시지가 이어졌다.

취임인사에서 한기홍 목사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됐지만, 은혜로 감당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며, 신임사장 이영선 목사는 "예전과 같이 더욱 신뢰를 담보하는 미주복음방송으로 태어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날 예배에는 200여명의 각계 각층의 축하객들이 참석했다.

▲문의: (714)484-1190

(기사제공: GBC 미주복음방송)



나성제일교회 임직감사예배후 임직자들과 기념촬영 했다.

“오점 없는 만점 인생 살라”

나성제일교회, 피터 장로 등 12명 임직

나성제일교회(담임 김문수 목사) 임직감사예배가 23일 오후 4시 열렸다.

김문수 목사 집례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성재경 장로가 기도했으며 백창호 목사(오렌지힐교회 담임, 남가주합신동문회장)이 '오점 없는 만점인생'(민20:1-1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에 이어 열린 2부 임직식은 장로장립, 안수집사 임직 및 명예 안수집사 추대, 그리고 권사취임 및 명예권사 추대순으로 이어졌다.

특별히 임직과 추대받은 이들이 서약문을 직접 읽음으로 직분에 대한 책임감을 더 크게 갖게 되는 시간이 됐다.

3부 축하의 시간은 본교회 혼성 중창단이 축하, 이순영집사와 김신

옥 권사가 바디워십을 했으며 명종남 목사(파사디나 한길교회 담임)가 임직받는 이들과 교우들에게 권면을, 이성우 목사(LA성시화 삼일 본부장, CCC미주총련원장)가 축사했으며 기념품증정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임직자 대표 신피터 장로가 답사했다.

이날 임직예배는 정은표 목사(전 아이다호장로교회 담임, 진리의 등대 발행인)의 축도로 마쳤다. 다음은 임직 및 추대자들 명단.

△장로: 신피터 △안수집사: 강태성, 최현수 △명예안수집사: 김부기, 박한문, 이현근 △권사: 엄정희, 이재경, 장경애. 장풍옥 △명예권사: 박윤경, 장희자.

(박준호 기자)



제6회 LA여성선교합창단 정기연주회에서 LA여성선교합창단과 소노로스싱어스가 연합으로 찬양하고 있다

제6회 LA여성선교합창단 정기연주회

제6회 LA여성선교합창단(단장 최정자, 지휘 최왕성) 정기연주회가 23일 오후 7시 원서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열렸다.

연주회는 '참좋은 신부', '매일 상례를 느끼네' 등 성가곡, '보리밭' '산에 살리라' '오빠생각' 등 한국가요, 동요 및 포크송, '내 진정 사모하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등 찬송가를 불렀으며 영엔젤스 콰이어(지휘 황현철)과 소노로스싱어스가 특별출연했다.

이날 연주회는 LA여성선교합창단과 소노로스싱어스가 함께 혼성 합창으로 '히브리노예들의 합창'과 '은혜야니면'을 부른뒤 이사장 김민석 장로가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애국가와 God bless America를 청중들과 함께 부른 뒤 고문 최대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인대학원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영아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8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아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igcusa@yahoo.com / www.lai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정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찬양(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scs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 일 학 교: 오전 11:20 영아예배 (장소: KDC, 킹덤빌딩내): 오전 9:20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아예배: 오전 9: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어져 있는 우리의 통증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전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이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아)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www.m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오전 8:00 주 일 학 교: 오전 5:45(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일예배: 오후 1:30 수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bel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9:2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새벽(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www.dkpc.org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수 요 예 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영양예배: 오후 7:30 www.irvinechurch.org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 일 학 교: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세계기독교센터: 365일 24시간 운영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영아)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강화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min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45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ic.org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hchurch.org / E-mail: pastor@corne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4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stone.org / E-mail: pastor@corne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4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창후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torrencegc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이단’ 역습에 한국교회 통합 발목 잡히나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의 통합을 위해 힘쓰던 이영훈 한기총 대표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자칭 ‘보혜사(保惠師)’였던 김노아(옛 이름은 김풍일)씨가 제기한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이재정)는 17일 “지난 1월 실시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어 김씨가 제출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면서 “이 폭사는 본안 판결 확정까지 한기총 대표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예정성서총회 세광중앙교회 당회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9월20일 김영환을 교회 당회장으로 임명했다”면서 “그러나 세광중앙교회 정관에 따르면 김씨가 은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한기총 대표회장 피선거권이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교회 원로목사 및 은퇴자는 피선거권이 없다’며 김씨의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회 정관상의 절차를 다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한기총 대표회장의 연임제한 규정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한기총 정관에 나온 연임제한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보궐선거로 선출된 이 대표회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따라서 이 대표회장이 보궐을 포함해 3연임을 한 것은 이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자를 자신으로 해달라’는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무대행자는 추후 별도로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김씨는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그는 1982년 6월 9일 한 목사후보생에게 수여한 임명장에 자신을 ‘한국예수교실로성전(聖殿) 보혜사 김풍일’이라고 적어놓았다. 같은 해 4월25일 한 신도에게 수여한 임명장에서도 자신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호칭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2009년 제94회 총회에서 김씨가 ‘신천지 이만희와 유사한 이단사상을 갖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지만 홍재철 전 한기총 대표회장은 김씨를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한기총과 한교연은 지난 12일 ‘심의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단 및 단체는 심의하여 받아들인다’는 합의조항에 따라 김씨에 대한 재심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김씨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먼저 인용되면서 ‘암초’를 만났다.

김씨가 소속된 예정성서총회 관계자는 “법원에서 우리가 기대하던 결과가 나왔다. 당연한 것”이라면서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김씨가)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왜곡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교회의 연합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뭐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교계에선 이 대표회장의 직무정지 소식에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전명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를 염원했던 이 대표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그러나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 그 어떤 이유로도 중단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선규 예정합동 총회장도 “이럴 때일수록 더욱 힘을 모아 한국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일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의회장은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이단성 인사가 등장해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한기총과 한교연이 하나 돼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두 기관은 통합을 이루고 이단들을 퇴치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대표회장은 이에 대해 “더 이상 이단성 인사에 발목 잡힐 수 없다.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할 것”이라며 “정서영 한교연 대표회장이 이번 결과와 상관없이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흔들림 없이 한국교회의 연합을 일구낼 것”이라고 말했다.

에 위배되는 일로 가능하지 않다”며 단호한 해석을 내렸다.

헌법위는 “목회세습금지법을 제정한 취지와 교단 및 교계의 정서를 고려할 때 가능하지 않다. 은퇴한 위임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 부목사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규정과 상관없이 청빙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엄격한 해석이 서울 명성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새노래명성교회와의 합병과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명성교회와 새노래명성교회가 소속돼 있는 서울동남노회는 25일 정기노회를 개최하지만 새노래명성교회가 관련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교회 합병 건은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다.

했다.

또 각 협력분야별 태스크포스트를 구성해 향후 발전 목표를 공유하고 협력분야에 관한 성과관리와 추가협력 사업분야 발굴을 통한 교류협력의 지속적 확대를 추진한다.

임승안 총장은 “나사렛대와 성결대, 한세대가 서로의 장점을 합쳐 최상의 시너지를 발휘해 대학 교육 혁신과 경쟁력을 끌어올려 대학사회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기독교 동아리인 줄 알았는데 사이버 종교 동아리라니

를 가했고 이번 학기에는 승인이 취소돼 사라졌다.

학교 분부 산하의 한 봉사팀에서도 위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 봉사팀에 침투한 사이버 종교 신도 학생은 다른 학생에게 포교를 시도했다. 봉사팀에서 포교활동을 당했던 A씨는 “봉사팀 내 선배가 특정인과의 만남을 부추겼다”며 “그 특정인은 봉사활동과는 무관한 종교적인 만남까지 요구했다”고 제보했다. 결국 A씨는 이 사실을 교목실에 신고했고 교목실의 권유에 따라 봉사팀을 나왔다.

심지어 사이버 종교단체는 연세대 기독교 단

체에까지 손길을 뻗었다. 지난 2013년 원주캠프 ‘연세기독교학생연합회’(이하 연기연)의 회장이 사이버 종교단체의 신도로 밝혀지며 교목실로부터 자리를 박탈당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지난 2016년 신천지 신도 증가율이 연세대 국제캠퍼스가 위치한 인천이 가장 높았고 원주가 뒤를 이었다.

연세춘추는 사이버 종교단체의 대학교 동아리 침투가 문제되는 이유로 △동아리 본래의 목적을 변질시키며 △동아리 활동을 하는 일반 학우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꼽았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내시설과 지원금을 제공해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그러나 사이버 종교단체가 동아리에 침투함으로써 원래 동아리 활동의 본질이 훼손되고 학교의 지원 의미마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버 종교단체로 인해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사이버 종교와 관련한 학생들이 동아리 내 몇몇의 사이버 신도 학생들로 인해 같은 사이버 신도로 의심받아 학내활동을 제한받거나 동아리가 사라져 동아리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기독교 헌안에 대한 주요 대선후보 입장 들어보니…

표류하는 한국 신학교들 갈등 여전

20일 개최된 ‘제19대 대통령선거 기독교 공공정책 발표회’는 교계에서 최초로 열린 19대 대선 정책 토론회였던 만큼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국민의당 문병호 최고위원,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이 각 당의 대선후보를 대리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밝힌 입장이 소속 정당과 후보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동성애, 문제인은 ‘오락가락’ …안철수·홍준표·유승민 ‘절대 반대’

헌법으로 동성애 비판 차단?

문재인 후보 측 김진표 의원은 “우리 민법상 동성혼은 허용돼 있지 않으며 동성애 동성혼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다만 국민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헌법정신을 지켜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그러나 문 후보가 지난 12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인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차별금지사유를 확대해야 한다” “성평등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문 후보의 주장대로 헌법이 개정되면 동성애에 대한 비판은 최상위법인 헌법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된다. 국가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하면 ‘성적 지향(동성애)’에 따른 차별금지가 헌법적 권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동성애에 대한 비판은 원천 봉쇄된다. 동성애 옹호·조장 인사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차별금지법이 일반 폭탄이라면 문 후보의 구상은 핵폭탄 급이다.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은 “동성애 옹호·조장의 최전선에 섰던 국가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게다가 남녀 양성평등이 아닌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른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잠시 자리를 떠나 문 후보와 직접 통화한 뒤 “대선 후 개헌을 위해 ‘국민참여개헌논의기구’를 설치해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할 예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어 “사회 붕괴의 원인이 되는 젠더 이데올로기에서 나온 성평등과 같은 개념을 말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문 후보 캠프 관계자는 “문 후보의 발언에 동성애도 포함될 것

이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다”면서 “당시 문 후보는 비서진이 써준 것을 읽은 것에 불과하며 이 부분은 다시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애에 강경 입장, 안·홍·유 후보

문 후보와 달리 나머지 후보들은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 측 문병호 최고위원은 “동성애 동성결혼 법제화를 절대 반대하며 성평등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양성평등으로 해서 정책을 바꾸고 한 치의 오�해도 없도록 하겠다”면서 “헌법 법률 조례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성애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이어 “교과서에서 동성애를 미화 서술한 부분도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후보 측 안상수 의원은 “동성애 자체를 반대하며, 동성애 비판의 자유를 억제하는 법은 있을 수 없다”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지금까지 반대해왔고 앞으로도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후보 측 이혜훈 의원은 “헌법상 혼인은 양성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에이즈나 각종 성병 등 질병으로 고통 받는 동성애자들의 치유와 질병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종교인 과세’는 온도차

2018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보완 후 과세에,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유보에 방점을 찍었다. 문 후보 측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종교인 과세는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이 상황

에서 과세할 경우 조세마찰과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 과세 당국이 종교 종단과 긴밀히 협의해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납세절차를 상세히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유예 등 다각적으로 정책방향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종교인 과세가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상

당히 이뤄진 상태”라면서 “다만 아직 시행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 측은 “과세유보가 당론”이라고 밝혔으며, 유 후보 측은 “과세기준을 확립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되므로 강행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무슬림 정책도 논란

무슬림의 무분별한 유입에 대한 문 후보 측 입장에서 논란이 됐다. ‘무분별한 다문화정책으로 무슬림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 후보 측은 “세계화·국제화시대 외국인을 엄격하게 관리하지는 것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대외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 다문화정책을 강화해 (무슬림의) 입국을 어렵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다만 “기독교계의 격정을 충분히 고려해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현안에 대한 입장은 비수했다. 문 후보 측은 “출산장려, 자살예방, 낙태방지 운동을 적극 노력해갈 것”이라면서 “종립학교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지원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했다. 특정종교가 한국교회의 전도를 저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종교평화법에 대해선 “기독교계의 의견을 경청해 입법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 측은 “역사교과서에서 한국기독교의 기독교 서술 왜곡·축소 현상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미션스쿨의 종교교육과 관련해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을 보장하겠다”면서 “‘선지원 후추첨제’ 등을 도입하고 종교 갈등으로 인한 전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 측도 “종립학교 내 종교 갈등에 따른 전학 허용에 찬성한다”고 했다. 유 후보 측에선 “한국기독교 성지순례 코스를 개발해 기독교 정신과 자긍심을 고양시키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설문 분석 기간간담회에서 “국내 크리스천들이 ‘장로 대통령’같은 기독교인 대통령보다는, 정책과 비전에 있어서 기독교적 가치를 구현하는 대통령을 더 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치 참여에 대한 개인 및 교회 역할에 대해서도 기독교인들의 적극적 성향이 드러났다.

“대선 후보 결선시 설교 등 목회자의 영향 정도”에 대해 77.9%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크든 작든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은 20.3%에 불과했다. ‘한국교회는 선출된 당선자가 향후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는지 감시해야 한다’에 대해선 10명 중 6명 정도(59%)가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국을 강타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태극기 집회’ ‘현직대통령 탄핵’ 등이 잇달아 겪으면서 ‘우리가 사회의 주체’라는 인식, 최다 교인을 보유한 종교적 책임감 등이 기독교인들 사이에 더해진 데 따른 영향이라고 손목사는 분석했다.

이 밖에 ‘차기 대통령이 다뤄야 할 한국교회의 최우선 과제’로는 ‘종교인 납세 문제’(26.2%)가 가장 많이 꼽혔다. ‘국경교과서 기독교 내용의 올바른 서술’(19.0%) ‘동성애’(16.4%) 등이 뒤를 이었다. 대통령후보가 지녀야 할 기독교적 성품으로는 ‘정직함’(44.8%)과 ‘책임감’(22.8%)이 가장 많았다.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는 ‘부패 청산·사회 개혁’(40.0%)과 ‘국민통합·화합’(22.9%) ‘도덕·윤리성 회복’(15.6%) 등의 순서로 꼽혔다.

3개 대학 ‘연합대학 구축’ 협약

학점 및 교수·학생 교류 추진

나사렛대(총장 임승안), 성결대(총장 윤동철), 한세대(총장 김성혜)는 12일 오전 경기도 안양 성결대 대회의실에서 연합대학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최근 국내 대학이 처한 위기극복,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유기

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려 마련했다.

3개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 △대학특화전략·정부재정사업 추진 △학점 및 교수·학생 교류 △신앙 공동체 및 사회봉사 △대학임시 △국제협력 △비교교과교육활동 △대학인프라 공유 등에 대해 협력기로

최근 많은 대학교가 사이버 종교단체의 동아리 침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1일 기독교 커뮤니티 '갯북'은 연세대 학교신문인 '연세춘추'를 인용해 사이버 종교단체들이 대학 내 동아리를 만들고 조직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공주대에서는 신천지에 몸담았던 한 학생이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대학교 동아리 내 사이버 종교 침투 실태에 대해 폭로했다. 신천지 신도 학생들이 탁구나 바둑처럼 종교활동과 무관해 보이는 동아리를 만들고 학생들의 가입을 유도, 동아리 안에서 조직적으로 포교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폭로한 학생은 "신천지 신도 학생들은 기독교 동아리로 위장된 단체를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포교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결국 공주대 동아리연합회는 문제 동아리들을 제명했다.

지난 2004년 전남대에서는 동아리연합회 자체가 신천지 신도들에 의해 장악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실은 신천지 신도였던 동아리연합회 회장의 폭로로 밝혀졌다. 신천지 신도들이 장악하며 회칙을 무시하면서까지 5개의 정상적인 기독교 동아리들을 제명시키기도 했다. 또한 당시 전남대에서는 신천지 신도 학생들이 일반

동아리에서 조직적으로 포교활동을 펼친 사실도 밝혀졌다. 이후 새로운 학생들이 동아리연합회를 구성하면서 문제가 된 동아리들은 교내에서 제명됐다.

연세대의 원주캠퍼스(이하 원주캠)는 사이버 종교의 동아리 침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체육 동아리에서는 신천지 신도인 학생들이 가입해 일반 학생들을 상대로 포교활동을 해왔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결국 지난 2016년 학생복지처는 교목실과 협의해 해당 동아리에 제재

를 가했고 이번 학기에는 승인이 취소돼 사라졌다.

학교 분부 산하의 한 봉사팀에서도 위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 봉사팀에 침투한 사이버 종교 신도 학생은 다른 학생에게 포교를 시도했다. 봉사팀에서 포교활동을 당했던 A씨는 “봉사팀 내 선배가 특정인과의 만남을 부추겼다”며 “그 특정인은 봉사활동과는 무관한 종교적인 만남까지 요구했다”고 제보했다. 결국 A씨는 이 사실을 교목실에 신고했고 교목실의 권유에 따라 봉사팀을 나왔다.

심지어 사이버 종교단체는 연세대 기독교 단

교토소 선교칼럼 (20)



교토소 교목, TPPM대표
이영희 목사

정의를 구하는 사람

교토소에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고통의 방에 들어가서 많은 영적인 공격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소자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문제보다 가족의 문제가 더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진 사람들은 정신적인 고통에서 헤메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중에도 로즈(가명)라는 여자 재소자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도 많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이 있으므로 목사님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로즈의 아들이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다 납치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납치한 사람들은 아이들을 성폭행하며 그것을 비디오로 만들어서 파는 무지막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복이 무서워 아들이 납치되었다는 것을 경찰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납치된 지 6주 후에는 아들을 납치해간 사람들이 로즈가 살고 있는 집의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그녀를 납치해가서 성폭행하고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 감금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만이 아들이 없는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교도소를 빨리 나가서 아들을 구해야 한다고 하며 울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그녀가 보복이 무서워 신고를 못한다고 하니,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시작하자고 그녀를 달래면서 그녀에게 여러 기도를 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첫째, 그녀에게 먼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빌고, 둘째는 하나님께 자기와 자기 아들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용서해줄라고 하고 그들을 회개 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셋째는 그녀가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한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녀가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이며 자신에게 미움과 용서 못하는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넷째는 하나님께 자기에게 열린 모든 고통의 문을 닫아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끝난 후 저는 그녀의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고 그녀의 가족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고 평안을 가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후 로즈는 자기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자기의 아들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경찰에게 그녀의 아들이 어느 집에 감금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녀는 정부의 도움으로 교도소에서 나갈 때는 로즈와 그녀의 가족이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이름도 법적으로 바꾸고 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끝내 그녀는 로즈의 아들이 경찰의 도움으로 구조 받아서 로즈 남편의 동생 집에 안전히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 로즈는 아들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아들은 납치되어서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로즈는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로즈의 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녀의 믿음을 돕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녀의 아들이 무사히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도소에서 로즈와 로즈의 남편이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로즈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기쁨의 눈물을 보면서 저는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을 겪은 로즈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때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로즈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떠난 딸과 지금 살아있는 아들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을 도왔는가를 나누었습니다. 로즈는 20살에 자궁암에 걸려서 절대로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의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 자궁을 들어내는 수술을 시작하기 전 피검사를 하는 중 임신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낳을 때쯤 되어서 태가 문제가 생겨서 제왕수술을 하고 난 딸이 태어난 후 8시간 만에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랍고 실망한 가운데서 그

녀는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평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딸이 천국에서 천사같이 가족을 위해서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을 체험 없이 믿었는데 딸을 잃는 순간에 그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즈가 다시 기적적으로 임신이 되어 낳은 아들이 후에 납치를 당한 후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구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로즈는 하나님께서 암으로 인해서 가질 수 없다는 아이들을 주신 목적과 이유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을 납치하고 로즈까지 납치해서 성폭행한 사람들이 많은 다른 어린 아이들을 납치해서 이런 범죄를 계속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복이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는 것을 로즈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되겠다고 과감하게 이런 사람들을 막을 수 있도록 경찰과 같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보복이 두려워 잘못된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악한사람들을 막는 일을 하는 데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로즈는 이제 그녀의 삶을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로즈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상처에서 치유를 체험하고 회복되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죄 없는 연약한 어린이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을 악하게 대하고 성폭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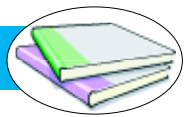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선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먼저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아이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에게 잘못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곧 회개하시고 다시는 다른 사람들을 상처주지 않고 평안을 주는 일을 하시고 정의를 구하는 일을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로즈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녀의 용기를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렘5:1).

yeonghui.mcdonald@gmail.com

새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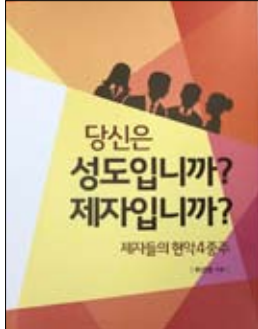


“당신은 성도입니까? 제자입니까?”

저자 최선영 박사

최선영 박사의 저서 “당신은 성도입니까? 제자입니까?”가 쿤란출판사에서 출판됐다. 저자는 서문에서 “당신은 성도입니까? 제자입니까?”라는 질문은 우리자신에게 반문

자는 예수님에 의해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해 신앙인이 되었다. 그러나 듣고 믿는다고 해서 다 제



제4부 외부구조: 성도와 교회
제5부 관계회복 제6부 대규모구조: 성도와 사회 제7부 성도와 하나님 제8부 하나님의 섭리 제9부 제자 제10부 회복된 영성유지로 역

“모든 성도는 제자가 돼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도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다. 그러나 모두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다.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다. 제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훈련을 통해 일할 수 있을 때 제자라고 말한다”라고 언급했다. 본 도서는 △제1부 소구조: 성도 △제2부 중간구조: 성도와 가정 △제3부 스트레스 △

었다. 본도서는 기독교서점에서 구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통일선교 기/도/소/식

누가 열쇠를 쥐고 있는가?

북한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해 과연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미국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를 포기했음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 핵개발을 포함한 위협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를 하겠다면서 핵항공모함 함대들을 한반도로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런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갈 길을 가겠다고 발표하면서, 최근 김일성 생일 열병식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등 최신의 전략 무기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북한의 입장에 현실적이라는 지속적인 지지를 했던 중국의 역할이 아주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는다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것은 자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중국이 과연 북한 변화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미국이나 일본, 러시아, 또는 통일의 당사자인 한국일까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태도와 행동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결의 열쇠라기보다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선택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

로 쉽지 않습니다. 정작 통일의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은 여전히 전쟁이 다시 재발될 수 있는 휴전상태입니다. 전쟁위기가 더해지는 외부적 환경속에서 북한이라는 독재정권 국가는 남한이 함께 통일을 향해 가야할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가 과연 통일의 열쇠를 쥐고 있던 말입니까?

이래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지난 달 이미 안타깝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불안한 남북한 상황에서 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통일의 준비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도 잘 모르지만, 이것을 알려주시길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쟁의 위험, 큰 재앙의 위협이 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한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기도하지 않나?’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 통일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부르는 미스바에서 기도합니다. 회개, 화해, 회복, 복음적 통일, 평화적 통일을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길 부탁드립니다.

NIM(North Korea Inland Mission) 대표
임현석 목사 드림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후 6:00(토) Tel. (206)579-7576, Fax. (2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오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세백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 배: 오전 10:00 수요오전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선종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세백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세백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영아, 유년, 유년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오전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5: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8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cseattle.org	안다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7:30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02)749-98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vchurch.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청가: 오후 8:00 세백기도: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ljrc.com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사택.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오전예배: 오전 12:00 주일부흥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백기도: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밀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세백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N.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오전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백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오전예배: 오후 8:00 세백기도: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창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영아예배: 오전 11시 주일찬양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세백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8675, Fax. (907)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kcc.org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세백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선교 펴기

선교, 지혜로운 모라토리움 (Moratorium)

뭐랄까요? "모라토리움 (moratorium)"은 심호흡 같고, "디폴트(default)"는 한숨 같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것, 또는 기다려준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새로운 에너지가 됩니다.

한 번은 "환경범죄 (Climate Crimes)"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영원한 성장이란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생태계의 한계점이 어디인가 알아야 하고, 한계를 정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녹색성장(Green Growth)의 모라토리움이다."

화요일 "남부역 거리교회" 급식사역에 사람들이 적게 온 날, 한 봉사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적게 왔네요?" 예! 저희 교회는 사람이 적게 올수록 부흥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어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 우리가 필요 없게 되는 그 날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

영원한 성장은 하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엤후4:13).

"...become mature, attaining to the whole measure of the fullness of Christ"(엤후4:13).

그 외에는 뭐든 한계를 정해야 합니다. 북한도,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한국도... 나도, 당신도... '주여! 우리나라의 평화를 지켜주소서!'

지난 부활절을 앞둔 종려주일날의 일입니다. 저희 주일학교에서 삶은 달걀에, 하얀 솜을 붙이고 눈코입을 그려 양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동네 양로원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공작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와 동역하는 안드라쉬 & 가브리엘라 목사님 통해 허락을 받아, 어린이예배도 그

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손자손녀 같은 아이들과 함께 귀여운 양을 만들고, 또 준비해온 선물을 받으니 모두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 한국 어린이예요?" 그 분은, 이 예쁜 아이들이 집시 일리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니예요, 할머니! 헝가리인이예요. 저



희가 집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희 사역의 목표는 집시들이 평범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시들이 헝가리인들에게 "모라토리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과 교육을 통해, 법을 지

키고, 교양 있는 삶을 살도록...! 불법과 공짜, 선물만 바라고, 불평불만하는 태도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성실, 감사하는 삶을!

"모라토리움(moratorium)"은 "지체하다"에서 나온, 일시적 정지, 유예를 말하는데 희망적이지요? "디폴트(default)"와 많이 비교되는데, 약속, 의무를 저버리다. 부도, 불이행이란 말로 절망적이네요.

한계를 정한다는 것! 먹는 것, 입는 것부터, 권력, 인간관계, 성...의 한계를 정했다면 그런 불행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오늘도 심호흡을 합니다(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Who then is the faithful and wise servant, whom the master has put in charge of the servants..."

선교, 지혜로운 모라토리움 (Moratorium), 그것은 인내도 많이 필요하네요.

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고자...!

헝가리 흥부선교사 김흥근&서명희 드림. mylovehungary@hanmail.net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고중성지질혈증

혈중 중성지방 수치 높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

현대 의학 지식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이런 새로운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환자치료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지침들이 제정되고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역학과 통계다. 역학은 과거에는 전염병의 원인을 알아내서 예방법을 제시하고 치료에 도움을 주던 것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여러 질병의 인과 관계를 규명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학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연관 관계는 끊임없이 반복된 연구의 결과로 이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도 역학 조사로 밝혀졌다 이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없었다면 현대인들 사이에서 흡연습관이 줄어들지 않았을 것이고 고혈압 치료에 대한 약물 개발이 미진해 인간의 수명은 지금처럼 길지 않았을 것이다.

실예) 공과대학 교수로 일하는 50대 중반의 박 모씨는 정기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박 씨는 지금까지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중성지방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담당 의사는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도 각종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평소 즐기던 술을 끊고 칼로리를 높일 수 있는 밥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을 채소 중심의 식단으로 바꿨다. 또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고 의사의 처방대로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약물을 복용했다. 3개월 후 박 씨의 혈중 중성지방 수치는 정상으로 떨어졌다.

중성지방은 혈중 전체 콜레스테롤을 구성하는 일부로 우리가 섭취하는 당분을 재료로 간에서 합성된다.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는 질환인 고중성지질혈증은 과거에는 상반된 연구 결과로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성지방 수치가 200mg/dl 이상이면 높다고 보는데 500mg/dl 이상이면 췌장염 등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고중성지질혈증이 나타나는 원인은 선천적으로 중성지방이 높은 가족력을 지닌 경우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 비만, 갑상선저하증 등 내분비 질환, 여성 호르몬 등이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는 위험인자로 알려졌다. 흔히 사용되는 피임약도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높일 수 있다.

치료는 비약물요법인 금주와 식사조절을 하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서 체중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약물요법이 실패할 경우는 약물치료를 시작하는데 최근에 개발된 약물은 매우 효과적이고 부작용도 적은 편이어서 널리 쓰이고 있다.

박 씨의 증례처럼 비약물요법과 약물 치료를 잘 병행하면 심한 고중성지질혈증도 효과적으로 치료되는 사례를 자주 본다.



소망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제2회 소망치매 포럼이 성황리에 열렸다

‘...기억이 사라지는 그날, 치매’ 주제 소망소사이어티 제2회 소망치매 포럼 성료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0분 감사한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여러분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기억이 사라지는 그날, 치매'라는 주제로 제2회 포럼을 개최했다. 약 400명이 넘는 참여자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소망치매 포럼은 나이 드신 연장자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를 둔 가족에게도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위로와 격려를 주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소망치매 포럼은, 소망케어교실의 강사들이 나와 모든 참여자들과 함께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손동작을 실연하는 시간과 소망을 소개하는 홍보 동영상 시청함으로 시작했는데 이어 테너 김성봉씨와 소망중창단의 소망의 노래 합창, 테너 김성봉씨의 특송,

유분자 이사장의 환영사로 이어졌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다니엘장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치매예방"이란 주제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치매 증상을 많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면 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 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인지능력저하의 진행과정에 대해 강연한 이윤심 심리학 박사는 정상적 노화과정 진행과 치매가 진행되는 과정의 차이에 대해 설명했다.

또 "치매에 관한 잘못된 상식 바로잡기"란 주제로 강연한 패티 모튼 OC 알츠하이머협회 부회장은, 치매 증상에 이르기 쉬운 위험 요소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치매 위험이 있을 경우는 주치의와 먼저 만나볼 것을 권하며 알츠하이머스 오렌지카운티협회에서 줄 수 있는 도움과 자원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어 치매 환자를 둔 진행속씨가 사례발표를 하고, 치매환자 간병인들을 위한 조언에 대해 강연한 김에린 임상

사회복지사는 누구에게나 다칠 수 있는 질병인 치매는, 가족들이 특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치매의 행동심리증상을 이해하고 환자를 대해야 하며, 간병인 스스로 자신을 잘 돌보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리셉시의 사례발표 후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후원사 중 하나인 Chiron Total 추첨을 통해 1명에게 2,000달러 상당의 치매 검사 진료권을 제공함으로 끝을 맺었다.

한편 4월 16일 전국 '전국보건의로결정의 날'을 맞아 소망소사이어티에서는 별도의 부스를 마련해 자신이 의료결정을 할 수 없을 때 대비해 작성하는 사전의료지시서를 무료 배포했으며, 포럼장 근처에 마련된 관련 단체들의 부스에서는 참여자에게 필요한 여러 정보를 제공해 치매에 관한 한인사회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에어비앤비 호스트 타미 바커, 인종차별사건 후 정중한 사과편지 전달 한미연합회, 바커 용기에 찬사

한미연합회(사무국장 방준영)는 최근 각종 매체에 크게 이슈화된 에어비앤비(Airbnb) 인종 차별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일 호스트와 게스트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지난 10일 한미연합회는 에어비앤비 게스트이자 인

종 차별 피해자인 서다인(Dyne Suh) 씨를 사무실로 초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인종 차별에 맞서 대응한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이와 관련해 에어비앤비 호스트인 타미 바커(Tami Barker) 씨는 가까운 미래에 공식 성

명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바커 씨는 서다인 씨에게 사과 편지를 전달한 후 한미연합회에도 연락을 취해 편지 사본을 보냈다. 타미 바커의 변호사가 쓴 그 편지에는 "바커 씨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녀는 아시안 커뮤니티, 특히 서다인 씨께 인종 차별 선입견을 증폭시킨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있다. 당시 바커 씨의 발언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격분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었다. 이것이 그녀의 변명 아닌 단순한 이유이며 바커 씨는 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인신공격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한미연합회 방준영 사무국장은 "모든 사회에 공개된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현재 곳곳에서 인종 차별 관련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함께 치열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다양한 사람들과 커뮤니티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한미연합회〉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2017 상반기 세미나 일정

날짜	지역	장소	이름	전화번호
2/6-7	LA	오렌지카운티	김영대 목사	714-392-9576
2/9-10	LA	오렌지카운티	윤건상 목사	949-705-7879
4/20-21	충북	평화교회	신형수목사	010-4004-7004
4/24-25	강원도	영월교회	남상욱 목사	010-3422-5556
4/27-28	전남	전남지역	유동희 목사	010-9770-0110
5/1-2	창원	큰빛교회	강석규 목사	010-8706-9183
5/9-10	부산	부영교회	정성영 목사	010-3001-9257
5/11-12	부산	주님의교회	김종문 목사	010-3074-7974
5/15-16	충북	충주교회	윤민식 목사	043-272-2721
5-18	서울	등대교회	박래면 목사	010-9090-8291
5/22-23	대구	햇불선교교회	장명석 목사	010-8372-5063
5/25-26	대구	새생명교회	김하림 목사	010-8938-8512
5/30-31	양산	영광교회	김종명 목사	010-3022-0690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사모가 받는 스트레스 요인 및 관리

■ 사모단상

박 모 사모는 새 교회에 부임해서 몇 분들과 친하게 지냈다. 그랬다가 “특정한 사람과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충고를 받았다고 한다. 그 후 아파트를 새 지역으로 옮겼는데, 새로 이사한 곳에 성도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성도로부터 “한 사람하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3분 이상 대화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다. 그래서 3분만 말하고 바람같이 사라졌다. 그랬더니 “사모가 대인기파환이 있다”라고 비난을 받아 그 후 사모만나는 것이 너무 서서워 6개월 정도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고 밖에 전혀 나가지 않았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빠져 피자만 시켜 먹었더니 살이 엄청 찼다고 호소했다. 사모들은 교인들로부터 한마디 들을 때마다 상처를 받는다.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물기 전에 또 다른 상처를 받는다. 교회 갔다가 바로 집에 들어와서는 밖에 나가지 않으니가 딸아이는 “우리 엄마는 늘 아파요”라고 할 정도가 됐다. 미주 모 기독교인에 나온 어느 사모의

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단 10:19)하면서 목사 사모의 긍지를 가지고 산다. 이 글을 읽는 사모들도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한 번 큰 소리로 선포해 보기 바란다. 둘째, 남편 목사님과 여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 목사는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과 여집사님들, 여성교회 회장들이나 구역장들 그리고 교회 비서와 심방 전도사 등 많은 여성도들을 상대하게 된다. 그리고 목회자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친절하고 반갑게 대해 준다. 그래서 집에서 자신의 남편에게 그러한 대우를 받아 보지 못한 여자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부드럽고 친절한 대우를 받으니 자기도 모르게 목사님을 좋아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성도들은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목사님을 존경하고 영적으로 사모하며 좋아하게 되는데 때로는 이러한 영적 사모함이 이성적인 감정으로까지 승화되어 목사님을 짝사랑하다가 한순간 잘못된 판단하여 목사를 유혹의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 그리하여 목회에 치명적인 결과까지 초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

해야 한다면 다른 성도들과 함께 가서 쓸데없는 오후나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평생 자기 옆자리에는 자기 사모 외에는 절대로 다른 여자를 앉지도 못하게 하는 철저한 규칙을 지키며 목양하였다고 한다. 필자가 풀리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하트 교수(Dr. Hart) 목사의 ‘개인적 성장’이라는 강의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때 교수님의 부인인 캐더린 사모께서 특강을 하시면서 사모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셨다. 남편 목사가 설교를 마치고 성전 문 앞에 서서 성도들에게 인사를 받으면 성도들은 모두 은혜 받았다고 악수를 하면서 “Pastor, you are so wonderful!”(목사님 당신은 참 훌륭하십니다)하고 인사를 한다. 그때 사모는 멀리서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지 말고 꼭 남편 목사님 옆에 딱 붙어 서서 “I am the Mrs. wonderful! I am the wonderful pastor’s wife!”(제가 바로 그 훌륭한 목사의 아내입니다)하면서 인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남편 목사가 그렇게 훌륭하게 되는데 옆에서

매일가정예배

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삼하12:24-25)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 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행복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진정한 회개가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행2:37). 다윗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됐고 그의 막혔던 기도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특별히 밧세바와 동침해 솔로몬을 낳고 다윗왕가의 대를 이었습니다. 본문에 “여디다야”라는 뜻은 솔로몬의 별명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도 같은 뜻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삼하12:26-31)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다윗이 범죄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은 계속되어 지켜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암몬지손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승리합니다. 시간적으로는 다윗이 한참 범죄할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내가 여대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삼하7:9)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 크

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돌아올 때 모든 것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가운데 있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범죄하면 막대기와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수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삼하13:1-14)

다윗의 큰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짝사랑하면서 큰 범죄가 시작됩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한 후 쫓아내버림으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결국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일관적 가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깊이 생각할 것은 자녀의 삶은 부모의 경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가정에서도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이 다윗의 자손들에게서 일어나

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면서 부인을 너무 많이 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조공과 함께 공주를 보낼 때 그 공주들을 받아 들였고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남의 아내까지 빼앗은 죄를 범했습니다. 자녀의 경건한 삶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목 심히 간교한 자라(삼하13:3-7)

자녀를 잘 기르려고 애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신앙친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논에게는 다윗의 셋째형 시므야의 아들 요나담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암논 옆에 있으니 암논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는게녕 더 큰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나쁜 일을 저지르려 할 때 옆에서 “그러면 안된다”고 사랑으로 권면해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암논은 친구로 말미암아 결국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믿음의 좋은 친구를 만나고 믿음의 좋은 친구가 돼야 하겠습니까.

금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삼하13:15-18)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욱체의 정욕은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암논이 다말을 연애했다(4절)고 했는데 이 뜻은 “육체적인 정욕으로 다말을 남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암논은 힘으로 다말을 범한 후 크게 미워하면서 다말을 내쫓아버렸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욕적으로 욱체를 남보았기 때문에 더 악하게 내쫓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욱체

의 정욕으로 악을 저지르면 점점 더 악해지고 타락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정욕으로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그 사이가 원수의 사이로 변한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도는 그 누구를 만날지라도 항상 신실한 주님의 사랑으로 만나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토 압살롬이 저를 미워하여(삼하13:19-29)

다윗왕의 자녀들에게 어려운 시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악을 행하고 내쫓아버리자 다말은 옷이 찢어지고 머리가 헝크러진 모습으로 친오빠인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에게 앙심을 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비참한 살인극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성도는 누구든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말이 역을 한 일을 당하기는 했지만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미움과 복수의 마음으로 가지고 2년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암논을 죽여 버렸습니다. 누구든지 복수심을 가지면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최고의 에제르가 된다 (18)



이희숙 사모

신앙수필의 일부분을 소개한다.

“똑같은 여자 이름 석 자인데 그 뒤에 ‘사모’라는 두 글자만 갖다 놓으면 전혀 딴 사람이 된다. 평범한 가정주부도 아니고 무슨 권위가 있는 사람도 아니다. 그렇다고 무게가 없는 사람도 아닌 것이 묘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만나는 사람에게 친밀감을 반드시 주어야 하지만 그 역시 지나치면 안되고 남편과 동행할 때가 많지만 조금만 나서는 것 같아도 벌써 보기가 좋지 않다. 말이 많으면 안 되지만 어디가도 궂다 놓은 보릿자루 같이 있어서도 안되는 사람, 항상 웃는 얼굴을 기대하고 있지만 웃음소리가 조금만 커도 안 어울리는 사람, 그리고 보면 ‘사모’란 자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고상하고 교양 있고 기품 있는 여인에게 마땅한 자리가 될 것이다.”

여기에 우리 사모들의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사모가 될 수 있을까? 때마다 일마다 주의를 하고 신경을 쓴다고 되지 않는다. 밤낮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그것이 가능할 것일까? 영혼의 아름다움이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그것을 잘 가꾸어 나가려는 ‘자각’, 그 마음가짐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필자는 매일 아침 거울에 비쳐진 자신의 모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내 이름을 큰 소리로 몇 번씩 외치면서 선포한다.

“너(희숙) 사모는 하나님의 택함 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희숙)사모

영혼의 아름다움이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그것을 잘 가꾸어 나가려는 ‘자각’, 그 마음가짐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필자는 매일 아침 거울에 비쳐진 자신의 모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내 이름을 큰 소리로 몇 번씩 외치면서 선포한다. “너(희숙) 사모는 하나님의 택함 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다. 목사는 성직자이지만 죄성을 가진 한 인간이자 남자이기 때문에 사모는 남편 목사의 주변을 조심히 살펴뵈어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다. 필자가 사모학 세미나를 인도하다보니 세미나에 참석하였던 사모님 중에 이런 고민을 상담해오는 사모도 적지 않았다. 어느 교회 목사님은 심방 전도사가 급하게 심방이 필요한 가정이 있다고 해서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여전도사와 함께 그 교인의 집으로 차를 타고 급히 달려갔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여전도사와 새벽같이 차를 타고 질주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이상한 소문이 퍼져 한동안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하려면 사탄은 지도자인 목사를 넘어뜨려서 교회를 파괴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목사는 심방할 때나 여성도를 상담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사모를 참여시켜야 한다. 만일 사모가 동참할 형편이 안되면 목사는 여성도와 단둘이 있지 말고 심방을 가지도 말아야 한다. 그리고 꼭 심방을

그의 웃을 뺏아주고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주고 그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사모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모들도 함께 인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필자는 주일날 예배를 마친 후에 꼭 목사님 옆에 서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교회에서 무슨 행사 후에 혹은 기념사진을 찍을 때에도 목사는 자기 사모가 꼭 자기 옆에 서도록 사모를 챙겨야 한다. 아니면 사모가 스스로 자신을 챙겨야 한다. 필자의 남편은 다른 사람이 다 참석했어도 자기 사모가 곁에 없으면 사진 찍는 것을 기다려서라도 사모가 참석한 후에야 기념사진을 찍는다. 다 교회 창립부흥성회에 가서 기념사진을 찍을 때에 본 교회 담임목사님은 자기 ‘에제르’ 사모를 찾지도 않는 것을 보고 놀랐다. 오히려 강사로 간 남편 목사가 “본 교회 사모님, 어서 오세요”하고 챙겨드린다.

hslee39@sbcglobal.ne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계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성동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l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본동 340-1 (131-231)				등둔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주)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등둔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 (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광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9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98-998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성북3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 (404-270)				승등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동 137 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00 (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곡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새벽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랑구 가락동 17길 29 (신일동) www.shinch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악동 49-45 www.eschinchon.org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경곤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82)2-926-4508 서울시 용인구 신원동 50-1 www.anamjeil.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창신동 불영동 415 www.yang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원본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전 5:00 금요성가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631) 서울시 강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02)32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4-10 (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북구 성내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shalom의 교육학(19)

Shalom



이희갑 목사
(아주사파서픽 대학교 교수)

잘못된 자녀는 없다, 잘못된 부모만 있을 뿐

교회교육의 핵심자원을 흔히 교회교육 전담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꼽는다. 그러나 중요하게 간과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학부모이다. 아이를 학교나 교회에 맡겨 놓고 자녀교육에서 손을 떼려 하는 부모님들이 있는 한 자녀교육은 절대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과 자녀교육의 책임이 바로 부모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유대교육의 성공요인이 바로 부모의 일차적 과제가 자녀교육에 책임을 지우게 하는데 있었다.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이번 회와 다음 회 두 차례에 걸쳐 싣고자 한다.

어머니 모니카 이야기

기독교 역사상 찬란한 업적을 남긴 성자 어거스틴은 주후 354년 11월 13일에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이교도였지만,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인 어거스틴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위해 기도했지만 어머니 기도와는 달리 어거스틴은 이미 소년시절부터 방탕한 생활을 시작했다. 수많은 여자와 동거를 하고, 18살 때는 아들을 낳았으며, 젊을 때 마니교라는 이교에 깊이 빠지기도 했다. 어머니 모니카는 날마다 교회에 와서 울며 기도하는데, 그때 고향 타가스테교회의 감독이 모니카를 위로하며 격려한 말은 그녀의 삶을 온전히 바꾸어 놓았다. ‘누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은 평생 그녀의 좌우명이 된다. 결국은 하나님은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에 응답하신다. 386년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나이 32세가 되던 해, 그는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를 읽고 긴 방황의 종지부를 찍는다. 이후 어거스틴은 거듭나서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성자요, 신학자요, 목회자가 되게 된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당사였던 자기를 새롭게 했다고 밝히

고 있다. 그렇다. 모니카가 보여준 그대로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성경에 나오는 자녀 이야기

자녀의 성공은 부모의 성취, 업적, 지식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부모 밑에서 망나니 같은 자녀가 있는 것을 많이 보아왔고, 또 반대의 경우도 많이 경험하고 있다. 성경에도 그런 예는 무수히 많다. 부모는 성공했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문이다. 사무엘은 또 어떤가? 그는 하나님의 눈물 어린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아들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정 설립의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 역시 아들을 올바로 교육하지 못했다. 그의 아들들은 백성들의 송사를 처리할 때 뇌물을 받고 처리하여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매우 근심케 했다(삼상8:3). 결국 장로들이 이를 빌미로 왕을 세울 것을 사무엘에게 요구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왕정의 일정부분의 책임은 사

자녀는 부모님을 보고 배운 대로 자라나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부모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모세의 부모를 보자.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 어’(출2:1)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지극히 평범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이의 잠재력을 보았다.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즉 하나님의 가지가 그 아이에게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느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모는 세상의 왕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이를 세달 동안 숨기고 마침내 갈대산자 안에 아이를 넣어 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어떤가? 그녀는 아이 사무엘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을 보았다. 그녀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

구들에게 나는 내 아버지가 가장 자랑스럽다고 했던 말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자녀에게 물어보자.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 열 명을 꼽아보라고. 그리고 그중에 부모가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이 대화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 이상의 더 좋은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녀교육의 고전이 되는 책, ‘부모와 아이 사이’라는 책을 저술한 하임 기네트 박사(1965)는 이 책에서 아이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아이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라고 권면한다. 즉 아이를 존중하지 않고 아이의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이는 자존심과 자신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아이를 나와 독립된 인격체로 보고 아이를 항상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아이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기네트 박사는 아이를 손녀처럼 대하라고 말한다. 왜 그런가? 자녀는 우리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기

극히 드물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지 않는가? 셋째, 언행일치의 모습을 자녀에게 늘 보여주어야 한다. 부모는 자신이 지키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행위를 요구한다. 그것을 위선이라고 부른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가? 저들은 자신들은 하지 않으면서 늘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부모는 성경말씀을 입으로 가르치기보다는 행동으로 가르칠 때에 자녀들은 변화하게 된다.

성공하는 자녀로 키울 것인가 행복한 자녀로 키울 것인가?

과연 성공이란 무엇인가? 돈을 많이 벌고, 일정한 지위에 오르고 남들에게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 성공인가? 성공의 기준을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가정 내부에서 찾아보면 어떨까? 그리고 부모의 행동기준을 이렇게 세워보자. 지금 여기에 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나의 평소의 행동과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의 행동과 다르다면 나는 올바른 자녀교육을 하고 있지 않게 되는 것이다.

행복을 가정 안에서 자녀와 함께 하는데서 찾기를 기도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 기억할 일이 무엇이었냐고 누군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였다. “대통령으로서 딸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해 지는 장면을 감상하며 딸이 탄 그네를 밀어주는 것입니다”(동아일보 2016년 12월 31일자 기사). 한국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이 어령 전 문화부장관이 하늘나라로 먼저 떠난 그분의 딸 고 이민아 목사를 기억하면서 쓴 책, ‘딸에게 보내는 마지막 키스’(열림원)를 읽는 중에 그만 필자는 울어버리고 말았다. 그는 딸에게 굶나잇 같은 평범한 이야기를 해주지 못한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며 이렇게 고백한다.

“만일 나에게 그 3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딱 한번만이라도 좋아요. 낡은 비디오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의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딸은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겠지요.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 문을 열고 “아빠 굶나잇”하고 외치면 나는 글썽한 팬을 내던지고 워다만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펴 딸의 가슴을 안을 겁니다. 딸의 키가 천장을 다다를 만큼 높이 들어 올리고 줄음이 온 딸의 눈, 상기된 뺨 위에 굶나잇 키스를 할 겁니다.”

hlee0414@gmail.com

자녀는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기업, 자녀교육의 책임은 부모 부모가 역할모델 될 때 자녀 자신감 생겨...감정존중, 약속 꼭 지켜야 부모 할 일: 자녀를 위한 기도, 대화, 언행일치 모습 보이기

경우 말이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왕은 무너져 가는 유대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방신상을 헉파한 성군이였다. 그가 병에 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 바로 이때 그의 아들 므낫세가 태어났다.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유다를 우상숭배의 길로 인도하였다(왕하 21:1-9). 더구나 그는 예루살렘에서 무죄하고 경건한 자들을 많이 죽여서 성경은 유다의 멸망이 그의 탓이라고 기록하고 있다(왕하 21:10-15, 렘15:4). 아버지와 달리 아들은 불신앙으로 점철된 경우이다.

모세의 형인 아론은 어떤가? 그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시조이며 종교 지도자였다. 그러나 그는 자식농사에서 실패자였다.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를 읽고 긴 방황의 종지부를 찍는다. 이후 어거스틴은 거듭나서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성자요, 신학자요, 목회자가 되게 된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당사였던 자기를 새롭게 했다고 밝히

무엘이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던 것에서도 기인한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일컬음을 받은 다윗은 어떤가? 그 역시 자식 교육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 첫째 아들 암논은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였고 이 사건은 그녀의 친 오빠이자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운명을 바꾸어 놓고 말았다. 그는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를 반역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대낮에 아버지의 처침과 동침하는 죄까지 저지르게 된다. 그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음을 알았으면서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시도했고 이후 아버지 시녀 아비삭을 아내로 삼으려다 결국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부모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한다고 해서 자녀가 저절로 잘 되고 잘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부모가 성공하는 것과 아이들이 잘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부모가 성공의 신념을 가지고 하루 종일 밖에 있을 때에 아이들은 혼자 고립된 영역에서 버려져 있거나 잘못된 환경에 유혹을 받기에 가장 쉬운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명심하자! 잘못된 쪽은 아이가 아니고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왜 그런가?

암아 기뻐함이니이다”(삼상2:1). 디모데의 어머니는 어떤가?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할머니의 믿음을 보고 자라났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녀교육의 핵심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

자녀교육에서 100%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색다른 이론으로 자녀교육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자녀교육의 핵심은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데 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이렇게 훈계한다. “아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골3:21). 노엽게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부모가 자녀를 배려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함으로 자녀가 불안해하는 상태를 말한다. 부모의 비 일관적이고 잘못된 행동은 결국 자녀의 용기를 잃게 만들고 낮은 자긍심, 자존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부모가 아이들의 역할모델이 되는 데에서 아이들은 자신감을 갖게 된다. 일전에 만났던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내 아이가 자기 친

업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과 기대, 목표의식을 불러 넣어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목표의식을 불러 넣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기에 건강한 자녀교육의 몇 가지 방법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자녀를 위해 기도하자. 늘 기도하자. 눈물로 기도하자. 자녀가 일어날 때, 밥 먹을 때, 학교에 갈 때, 학교에 있을 동안에, 집에 올 때,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잠을 잘 때 쉬지 말고 기도하자.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라도 가정과 자녀가 당신이 돌보아 할 우선순위를 잊지 말자. 둘째, 함께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너무도 바쁜 시간 속에 살고 있기에 늘 다른 것에 집중하다 살면 정작 자녀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 그러기에 자녀들과 함께 있을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이를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자. 예를 들면 토요일 오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자녀와 함께 있겠다는 다짐을 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자. 그리고 늘 대화하자. 자녀와 대화하는 통로를 항상 열어 놓자. 하루에 얼마나 자녀와 대화하는가? 30분 이상 대화하는 부모가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Jan 16-Mar 10 (1월 16일-3월 10일) -Required
DI 8160 Trends in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March 6-10(3월 6-10일)
DI 8410 Spiritual Conflicts (영적전쟁)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Scott Moreau

On Campus Courses

2017 봄학기 강의 안내

March 20-24(3월 20 -24일)
DI 8330 Biblical Apologetics in a Pluralistic World
(다원적 세계에서의 성경적 변증론)
<DI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필수과목 대치 과목임>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Daniel Lute

Mar 27-31 (3월 27-31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in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에서의 문화인류학)
For D.Ics. Students (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ter

April 24-28(4월 24-28일)
PM 8030 Gospel Centered Ministry(복음중심사역)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Matthew Harmon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